



2010

서울시 자영업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Th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s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박희석 · 김범식 · 김묵한

서울시 자영업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Th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s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2010

■ 연구진 ■

연구책임 박 회 석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원 김 범 식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목 한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양 승 희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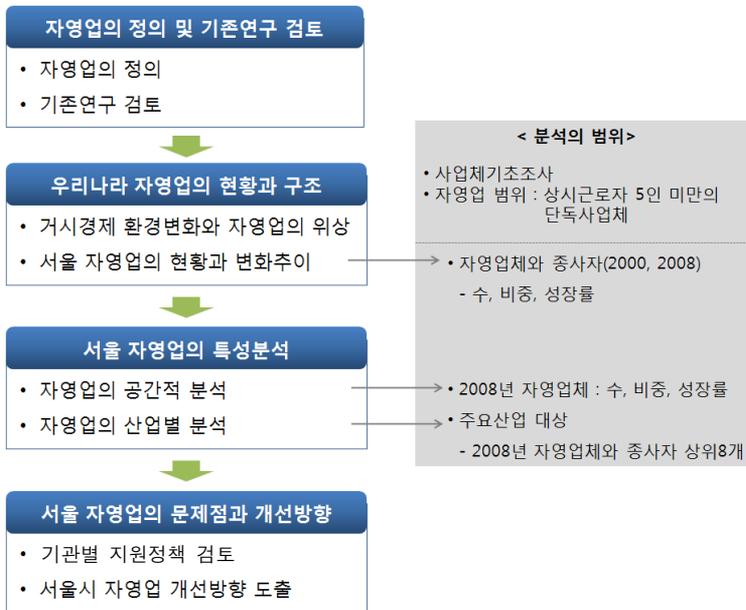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자영업은 산업 분류상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서울시 GRDP의 39.4%(2008년 기준), 서비스업의 45.5%(200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이 지대함.
-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421만명, 서울시 23.8%, 2008년 기준) 중 3년 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4%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임.
- 따라서,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자영업의 정의 및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의 방향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선정함.
- 둘째, 우리나라 자영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서울의 사업체와 자영업체를 비교분석함.
-2000년, 2008년의 사업체기초조사를 이용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단독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 비중, 성장률을 분석하

- 여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함.
- 셋째,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역별·산업별 자영업의 특성을 분석함.
 - 2008년 서울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집적도를 살펴보고 주요산업(2008년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상위 8개)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적도를 분석하여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산업적 특성을 도출함.
 - 넷째,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서울시의 자영업 정책방향을 제시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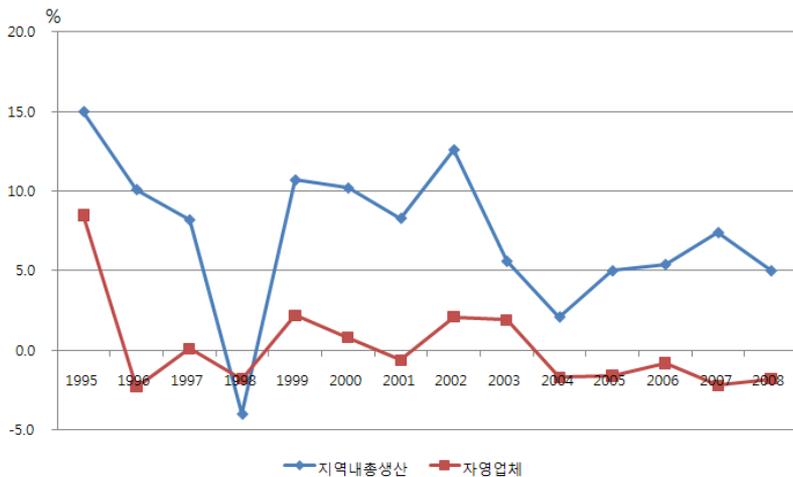
II. 주요 연구내용

1. 서울시 자영업 현황

○서울의 경제성장률(GRDP 기준)과 자영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자영업은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2003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2008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한 반면, 서울의 자영업체 성장률은 -1.8%를 기록함.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자영업의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주 : 전년비 증감률 기준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2〉 서울 경제성장률 및 자영업체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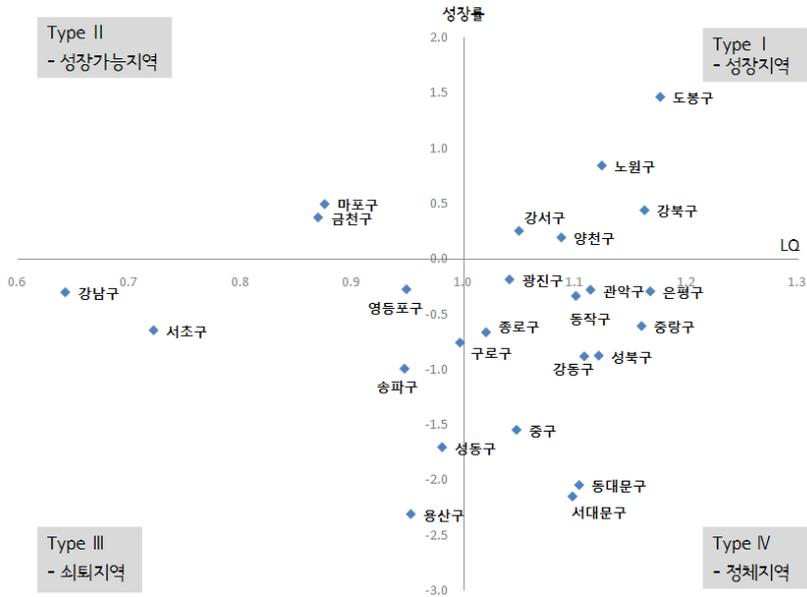
○2008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체는 서울 전체 사업체의 69.8%(502,498개소)를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부 산업별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서울시 자영업체 종사자 비중은 64.2%, 서울 전체 사업체 비중은 57.6%에 달함.
- 서울시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지난 8년간(2000~2008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울의 총 사업체는 8년간 연평균 증가율 0.0%로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자영업체는 연평균 0.6% 감소함.
 - 서울의 총 종사자는 8년간 연평균 1.7% 증가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연평균 0.9% 감소함.
- 같은 기간(2000~2008년)에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부산업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 대체적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자영업체 5.0%, 종사자 3.9%), 건설업(자영업체 4.7%, 종사자 1.9%), 순으로 증가함.
 - 반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업체 33.1%, 종사자 33.1%), 금융 및 보험업(사업체 6.9%, 종사자 5.6%),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체 3.0%, 종사자 3.7%) 순으로 감소함.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 권역별 특성

- 2008년 서울시 자영업체의 수,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 성장률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서울시 자영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 자영업체(수)는 중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률은 강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과 강서권(마포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사업체 중 자영업체 비중은 강남보다 강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서울시 자영업체의 성장률과 입지상 계수(LQ)를 이용하여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타입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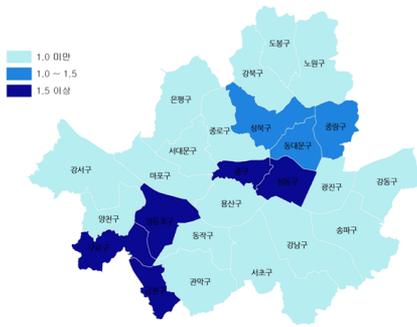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자영업체 지역별 특성

- 타입 I(성장지역)은 LQ 1.0 이상이고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강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과 강서권(강서구, 양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 타입 II(성장가능지역)는 LQ 1.0 미만이고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마포구와 금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 타입 III(쇠퇴지역)은 LQ 1.0 미만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과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 타입 IV(정체지역)는 LQ 1.0 이상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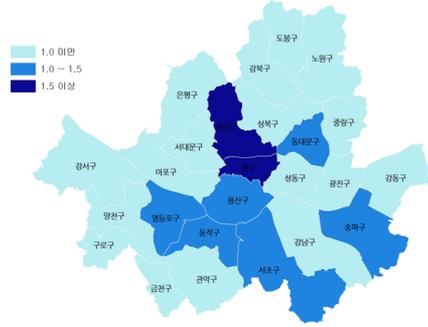
역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 비중의 상위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의 분포도(절대비중)와 특화도(상대비중)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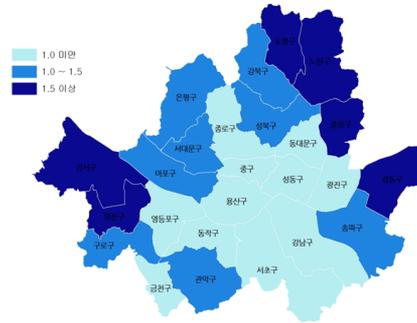
- 분포도 = a자치구의 b산업 자영업체 수 / 서울 b산업 자영업체 수
- 특화도(LQ) = (a자치구 b산업 자영업체 수 / a자치구 총 사업체 수) / (서울 b산업 자영업체 수 / 서울 총 사업체 수)
- 제조업은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 이어 성동구(2.0), 중구(1.8), 구로구(1.8), 금천구(1.5), 영등포구(1.5)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
- 도매 및 숙박업은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 중구와 종로구는 특화도 1.9, 1.5로 발달되어 있음.
- 운수업은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2.0 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관악구, 강북구, 마포구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
-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특화되어 있음.
- 교육서비스업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에 특화되어 있음.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특화되어 있음.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송파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특화도 평균 1.1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고르게 발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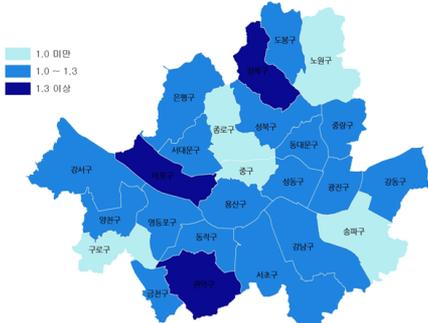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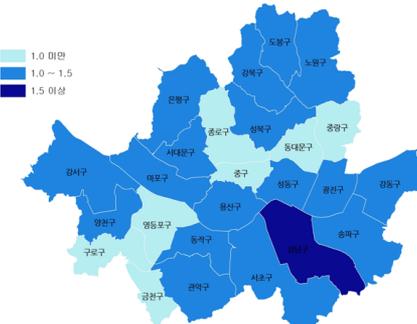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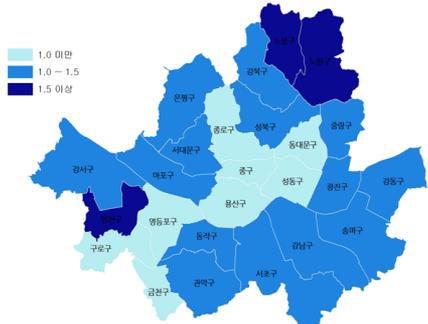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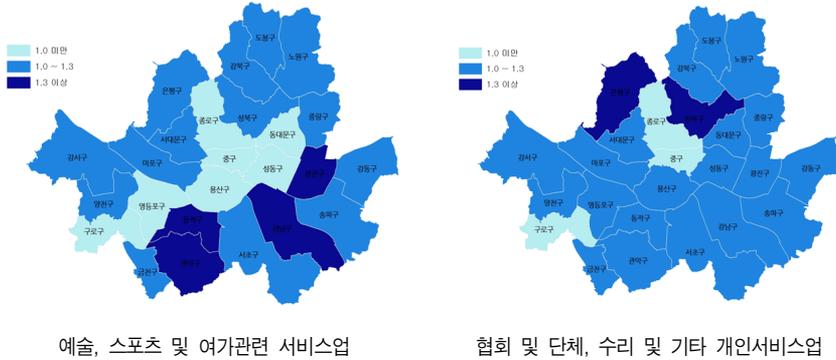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그림 4〉 산업별 공간분포(상대비중)



〈그림 4〉 산업별 공간분포(상대비중)

○앞에서 분석한 사업체의 비중과 특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치구별 산업의 집적도와 산업별 클러스터 여부(Getis and Ord의 Local G분석 통계량 활용)를 참고하여 산업별 공간특성을 분석한 결과, 3개 권역에서 산업별 공간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강서권(강서구, 양천구)은 성장지역(타입 I)으로 운수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은 쇠퇴지역(타입 III)으로 부동산업, 교육, 여가,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도심부(중구, 종로구)는 정체지역(타입 IV)으로 제조업과 도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표 1〉 서울시 자영업체 권역별 산업 특성

구분	지역	특화도	성장률	집적·클러스터 산업	
타입 I	강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LQ >> 1	+ +	-
	강서권	강서구, 양천구	LQ > 1	+	운수업
타입 III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LQ << 1	-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영등포권	영등포구, 구로구	LQ < 1	-	-
타입 IV	중부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LQ > 1	- -	제조업, 도·소매업
	관악권	관악구, 동작구	LQ > 1	-	-
	강동권	광진구, 강동구	LQ > 1	-	-
	중랑권	중랑구, 성북구	LQ >> 1	-	-

주: 특화도 >>는 1.1 이상, <<는 0.8 이하
 성장률 ++는 0.5% 이상, - -는 -1.5% 이하를 의미
 타입 II는 지역별 특징만 나타나고 권역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됨

3. 자영업 지원정책 검토

- 중앙부처의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로 집행되며, 몇 개의 사업은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크게 자금,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시설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경제진흥본부의 창업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나, 현 부서는 2010년 민선 5기 맞이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되어서 자영

업 관련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은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서울시 별도의 정책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 교육 등의 교육부와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등의 자금부문이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청년창업스쿨, 하이서울 창업스쿨, 맘프러너(주부사업가)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표 2〉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책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스마트숍 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공제자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자립 자금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읍면동 주민센터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혁신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e러닝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표 계속〉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책
교육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각종 훈련기관		
	창업 아카데미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 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
	5단계 패키지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고령자 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전문훈련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창업스쿨 교육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맘프러너 e-러닝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컨 설 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매점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지원			
	맘프러너 e-러닝센터 수 료 후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스쿨 교육수료 후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보 제공	청년창업 컨설팅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소상공인지원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지원			
시설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중소기업청			
	청년창업 창업공간제공				청년창업지원센터

○서울시 자영업 지원체계는 정책별로 집행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중복 운영되고 있음.

–또한, 지원기관마다 주관부서가 다르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표 3〉 서울시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산업 통상진흥원	서울시립 직업학교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스마트숍 육성자금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	
교육	창업 아카데미	○			
	여성 창업과정	○			
	5단계 패키지교육	○			
	창업교육		○		
	고령자 교육		○		
	직업전문훈련				○
	창업스쿨 교육			○	
컨설팅	맘프러너 e-러닝센터			○	
	자영업 컨설팅 지원	●			
	맘프러너 e-러닝센터 수수료 후 지원			○	
	창업스쿨 교육 수수료 후 지원			○	
시설 지원	청년창업 컨설팅			○	
	청년창업 창업공간 제공			○	

주 : ● 중소기업청의 정책, ○서울시 시책

Ⅲ. 정책건의

1.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과 집행기관의 일원화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집행 기관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소상공인지원 산하로 이양되어 운영될 예정임.

〈표 4〉 지원정책별 집행기관

정책 부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SBA	소상공인 진흥원
	창업소상공인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원과		
집행기관	-	서울직업 전문학교	일자리플러스 센터	청년창업센터 서울신기술창업 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 정책별로 주관 부서와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운영될 수 있고 운영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짐.
 - 자영업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집행기관의 단일화가 필요함.

2. 업종별 · 권역별 지원체계의 차별화

-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로 다른 산업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 · 권역별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함.
- 성장지역(타입 I)은 강북권과 강서권으로, 현 사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확대 및 공영의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을 유도함.
 - 운수업이 발달되어 있는 강서권은 전문지식 및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영업체의 역량을 강화함.
- 쇠퇴지역(타입 III)은 강남권과 영등포권으로,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 퇴출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함.
 -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는 강남권은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정체지역(타입 IV)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으로, 자영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특화되어 있는 도심부(중구, 종로

구)는 기업형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및 컨설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함.

3. 자영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강화

- 서울시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직업훈련을 중복지원하고 있음.
 - 청년실업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조경관리, 네일아트 등의 직업훈련이 중복되어 있음.
 -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학교별로 특성화된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기업 및 창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편이 필요함.
 - 학력, 직종, 연령 등 자영업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과 훈련 생간 1:1 채용약정을 체결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이 확대되도록 유도함.

4. 세분화된 자영업 DB구축

- 업종·지역·규모별 자영업의 주요 경영상의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창업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창·폐업률, 매출액 등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상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입허가(관할 구청) →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목 차

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장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상과 구조	9
제1절 자영업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1. 자영업의 범위 및 정의	9
2.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자영업의 위상	17
1.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7
2. 국가 간 자영업의 비교와 변화추이	21
제3절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특징	24
1. 자영업 규모의 축소	24
2. 저숙련·저소득의 생계형 자영업 중심	27
3. 중·고령 세대와 젊은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	30
3장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분석	35
제1절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35
1. 서울 GRDP와 자영업의 성장률	35
2. 서울 자영업의 일반 현황	36
3.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 변화 추이	40
제2절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44
1.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 분포	44
2.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47

제3절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특성	49
1.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공간 분포	50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공간적 특성	56
4장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67
제1절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 검토	67
1.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67
2. 중앙부처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72
제2절 서울시 시책 검토 및 개선방향	78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78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문제점	84
5장 서울시 자영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89
제1절 요약 및 결론	89
1. 서울시 자영업 현황	89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권역별 특성	90
3. 자영업 지원정책 검토	91
제2절 자영업 정책 제언	93
1.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과 집행기관의 일원화	93
2. 업종별·권역별 지원체계의 차별화	93
3. 자영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강화	95
4. 세분화된 자영업 DB구축	95
참고문헌	99
부 록	105
영문요약	111

표 목 차

〈표 2-1〉	기관별 자영업의 정의	12
〈표 2-2〉	자영업의 분석 범위	13
〈표 2-3〉	자영업 선행연구	16
〈표 2-4〉	주요국 비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23
〈표 2-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전국-전산업)	26
〈표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전국-전산업)	27
〈표 3-1〉	2008년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와 자영업체	38
〈표 3-2〉	2008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	39
〈표 3-3〉	서울 자영업체 산업별 변화추이	40
〈표 3-4〉	서울 자영업 종사자 산업별 변화추이	41
〈표 3-5〉	2008년 서울 자영업 종사자 지위별 비중추이	43
〈표 3-6〉	서울시 자영업 권역별 특성	48
〈표 3-7〉	주요 업종	49
〈표 3-8〉	평가 항목 및 기준	56
〈표 3-9〉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와 클러스터 형성 여부	57
〈표 3-10〉	서울시 자영업체 권역별 산업 특성	64
〈표 4-1〉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	69
〈표 4-2〉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74
〈표 4-3〉	고용노동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76
〈표 4-4〉	보건복지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77
〈표 4-5〉	2010년도 최저 생계비 기준	77
〈표 4-6〉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79
〈표 4-7〉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80
〈표 4-8〉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 훈련과정	81

〈표 4-9〉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원정책	83
〈표 4-10〉 서울시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85
〈표 5-1〉 지원정책별 집행기관	93
〈표 5-2〉 서울시 자영업체 권역별 산업 특성	9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
〈그림 2-1〉 자영업의 범위	10
〈그림 2-2〉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18
〈그림 2-3〉 경제성장률	19
〈그림 2-4〉 민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20
〈그림 2-5〉 지니계수	21
〈그림 2-6〉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22
〈그림 2-7〉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1인당 GDP	23
〈그림 2-8〉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비중	25
〈그림 2-9〉 업종별 자영업 동기	28
〈그림 2-10〉 업종별 창업기간	29
〈그림 2-11〉 업종별·사업기간별 폐업자 비율	29
〈그림 2-12〉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	30
〈그림 2-13〉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	31
〈그림 2-14〉 업종별 여성자영업자 비중	32
〈그림 3-1〉 서울 경제성장률 및 자영업체 증감률 추이	36
〈그림 3-2〉 서울 자영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37
〈그림 3-3〉 서울 자영업 종사자 지위별 비중 추이	42
〈그림 3-4〉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분포	44
〈그림 3-5〉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비중	45
〈그림 3-6〉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성장률	46
〈그림 3-7〉 서울시 자영업체 지역별 특성	47
〈그림 3-8〉 제조업의 공간분포	50
〈그림 3-9〉 도매 및 소매업의 공간분포	51

〈그림 3-10〉 운수업의 공간분포	52
〈그림 3-11〉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공간분포	52
〈그림 3-12〉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공간분포	53
〈그림 3-13〉 교육서비스업의 공간분포	54
〈그림 3-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공간분포	55
〈그림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공간분포	55
〈그림 3-16〉 제조업 G통계	58
〈그림 3-17〉 도매 및 소매업 G통계	59
〈그림 3-18〉 운수업 G통계	60
〈그림 3-19〉 숙박 및 음식점업 G통계	60
〈그림 3-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G통계	61
〈그림 3-21〉 교육 서비스업 G통계	62
〈그림 3-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통계	63
〈그림 3-2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G통계	63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자영업자는 본인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러 위험을 자신이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임.
 - 이처럼 자영업자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와 달리 경기변동 특히,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함.
 -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각각 110만 개와 28만 개 감소하여 실업자 100만 명이 양산되었고 2003년 신용대란과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로 인해 자영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 서울시 자영업은 산업 분류상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서울시 GRDP의 39.4%(2008년 기준), 서비스업의 45.5%(200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이 지대함.
 -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경제구조로 자영업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6%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421만명, 서울시 23.8%, 2008년 기준) 중 3년 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4%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임.

— 따라서,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 연구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서울시 자영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그림 1-1> 참고).

○ 첫째, 자영업의 정의 및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이 연구의 방향과 이용 가능한 자료를 선정하고자 함.

○ 둘째, 우리나라 자영업의 일반적인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서울의 사업체와 자영업체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 자영업의 위상에 대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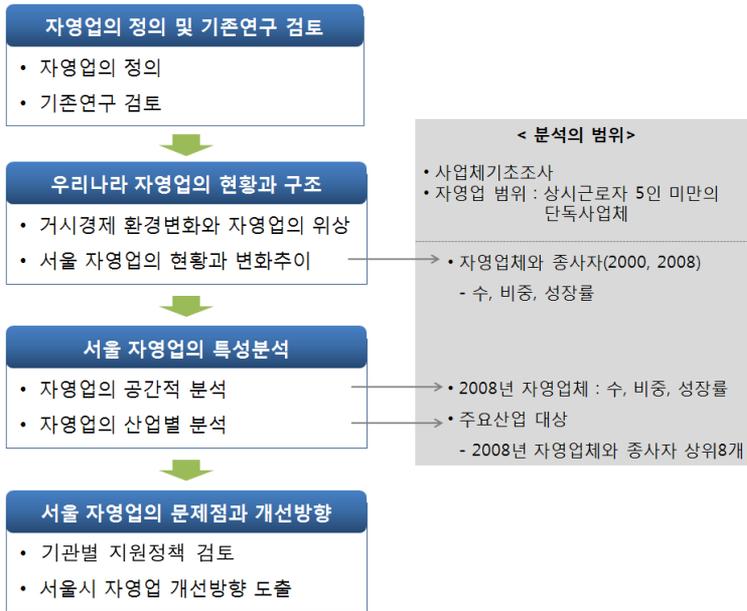
— 2000년, 2008년의 사업체기초조사를 이용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단독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 비중, 성장률을 분석하여 전국과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함.

○ 셋째,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역별·산업별 자영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2008년 서울 자영업체의 주요산업(2008년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상위 8개)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적도를 분석하여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

적·산업적 특성을 도출함.

○넷째,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서울시의 자영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상과 구조

- 제1절 자영업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제2절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자영업의 위상
- 제3절 서울 자영업의 구조적인 특징

제 2 장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상과 구조

제1절 자영업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자영업의 범위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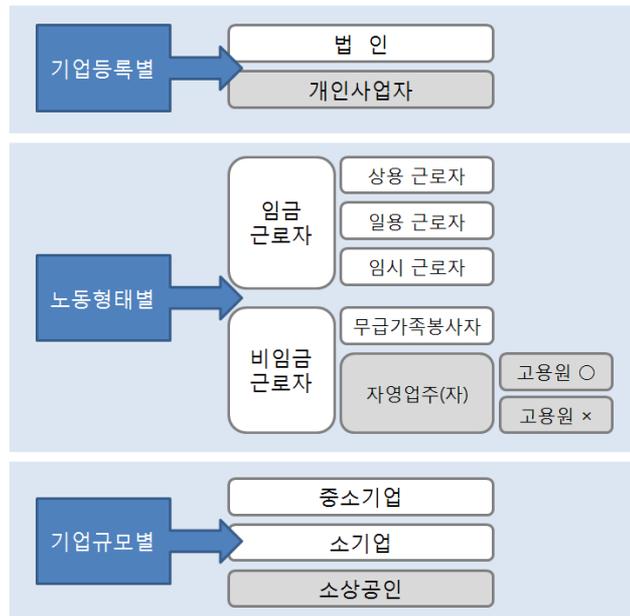
1) 자영업의 범위

- 자영업은 기업등록, 노동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그림 2-1> 참고).
- 기업등록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 법인은 상법, 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체
 - 개인사업자는 법인격 없이 개인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
- 노동형태는 취업자¹⁾의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눌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있어 조사기간에 ①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③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수 있음.

-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됨.
- o기업규모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짐.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업종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이 1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규정됨.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업종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



〈그림 2-1〉 자영업의 범위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업 및 운수업은 5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10인 미만으로 규정됨.

- 중소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함.2)

2) 자영업의 정의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칭하며,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각 기관 및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의 정의에 차이가 있음(<표 2-1> 참고).
- 자영업자의 정의는 크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주로 지칭함.
 -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고용주는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함.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종사자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함.
 - 자영업주를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로 지칭함.
-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743호) 제2조 제2항에서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록 1 참고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업종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규정함.

〈표 2-1〉 기관별 자영업의 정의

기관	통계조사	자영업의 정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주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지칭 - 자영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는 5인 미만)

3) 이 연구의 자영업 정의 및 범위

○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자영업으로 정의하고자 함.

– 자영업자의 산업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라 대분류 업종 18개를 대상으로 함(<표 2-2> 참고).

〈표 2-2〉 자영업의 분석 범위

대분류		기 준
A	농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 1 ~ 4인 개인사업자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 : 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KSIC 9) 기준

2.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자영업 관련 연구는 노동시장 특성, 사회보장제도,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동시장 특성 관련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의 변화추이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연구로 금재호 외 3인(2009)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전국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특성과 경제활동을 분석함.

-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 자영업 지속 여부 등을 계량분석함.
- 이승렬 외 4인(2009)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즉 서울과 안산의 영세 자영업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사례분석함.
- 손민중(2009)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취업구조에 대해 분석함.
- 이를 통해 생계형 자영업, 중고령 노동력 흡수, 소득분포의 양극화란 특징을 밝혀냄.
- 자영업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로 국제노동브리프(2005)와 국내사례로 서근하(2009) 등의 연구가 있음.
 - 국제노동브리프(2005)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례를 분석함.
 - 유럽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제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제도, 특정한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의 3가지로 구별됨.
 - 첫째,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포괄적인 제도는 직업적 차이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간의 차이를 나타냄.
 - 고령·근로능력 상실·상병 및 출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장을 하지만, 실업보험은 근로자에게만 해당함.
 - 둘째, 일반적인 제도에서는 자영업자의 모든 직업 형태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됨.
 - 이 제도는 자체적인 행정적 구조를 갖추고 자영업자 단체 및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재정 충당과 자영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셋째, 특정한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는 각 직업집단을 구별하여 관리함.

- 서근하(2007)는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언함.
- 자영업 관련 지원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종합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업종별·분야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함.
- 자영업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를 사용되는 자료 및 분석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
 - 이승렬, 최강식(2007)은 한국과 일본의 자영업자의 특성 및 소득 발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분석함.
 - 한국은 자영업 종사기간, 일본은 자영업 종사 이전의 직업이 자영업의 소득발생에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김준영, 김성환(2009)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³⁾를 이용해서 취업형태별 소득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함.
 - 임금노동자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규모, 근속연수 등이 소득불평등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자영업 관련 연구는 가구중심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음.
 - 이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변화추이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산업별·권역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2001년부터 전국 50,000가구를 대상(2006년 이후 75,000가구로 확대)으로 15세 이상 취업자의 인적·직장 특성에 관한 조사임.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나 조사대상 가구는 매년 변경됨

〈표 2-3〉 자영업 선행연구

특성	연구자	제목	내용 및 의의
노동시장	김재호 외 3인 (2009)	자영업 변화추이와 특성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과 변화추이 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특성,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 지속 여부 등을 분석
	이승렬 외 4인 (2009)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 서울과 안산의 자영업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분석
	손민중 (2007)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한국종합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을 분석
사회보장	국제노동브리프 4) (2005)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 유럽, 벨기에, 덴마크 등 해외의 자영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서근하 (2007)	한국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에 관한 연구	- 영세자영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정책을 비교분석 - 중소상인의 안정구조, 해외진출의 토대 마련과 활성화 측면 정책 제언
소득요인	이승렬, 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력조사를 활용하여 한·일 자영업 종사자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 -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위회귀 분석
	김준영, 김성환 (2009)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요인분해-임금노동자와 비교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활용하여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4) 국제노동브리프 3권 4호, 기획특집 pp.4-44, 국가별로 각각 저자, 유럽·벨기에(Paul Schoukens), 덴마크(Bent Greve), 독일(백인립), 영국(Michael Hill)

제2절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자영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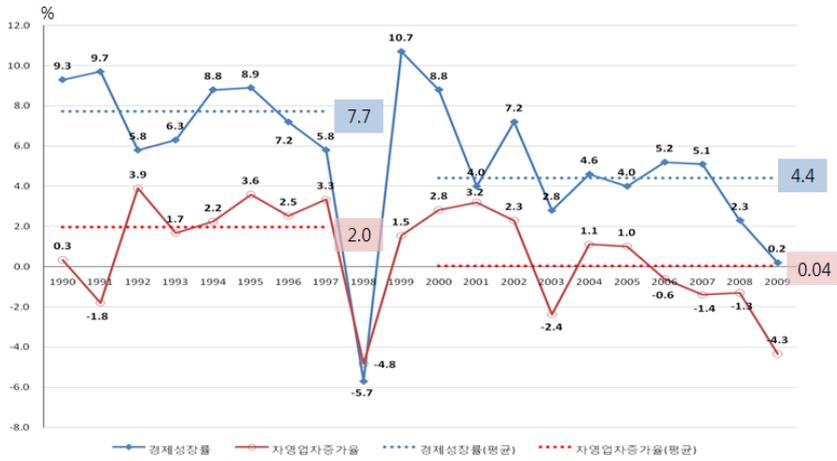
1.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노동,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함.
 - 금융세계화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이전보다 훨씬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국제자본 흐름이 가지는 경기 순응적 속성으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
 -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 변동성이 미국의 3.8배, 시간당 실질임금의 변동성은 미국의 20배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됨.
 - 반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완충역할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변화에 취약한 서민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경제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의 체감 불확실성이 확대됨.
 - 체감 불확실성 확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침체와 기업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됨.
- 결국,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소규모, 소자본 업종에서 자영업 창업이 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내수부진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부진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그림 2-2> 참고).



〈그림 2-2〉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주요 변수의 변화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 소비, 소득분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함.
 - 성장측면은 경제성장률, 소비측면은 민간실질소비 증가율,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를 활용함.
-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과 자영업자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는 추세임.
 -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7.7%에서 외환위기 이후 4.4%로 3.3%p 낮아졌고, 자영업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2.0%에서 0.04%로 1.96%p 낮아짐.
 - 특히 자영업자 증가율은 2003년 우리나라 신용대란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정체되다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3〉 경제성장률

○민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역시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며, 경제성장률보다 변동성이 커짐.

–민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 평균 7.7%에서 외환위기 이후 4.4%로 낮아져 경제성장률과 평균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동행성이 심화됨.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 증가로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영업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소득 불안정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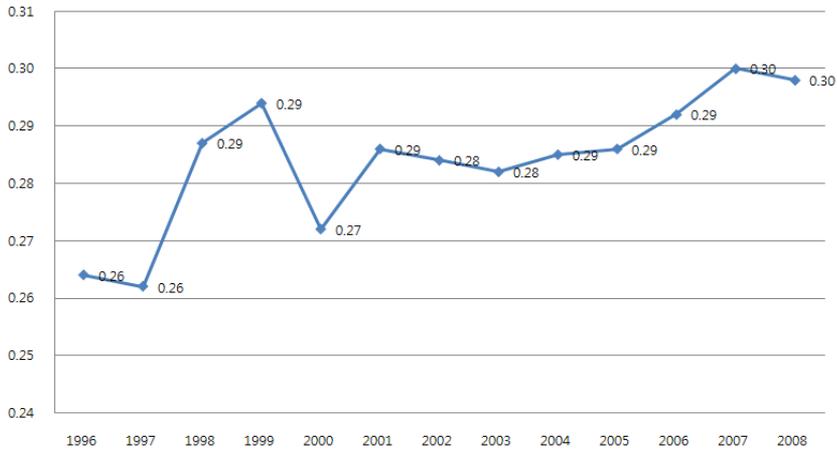


주 : 1분기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4〉 민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0년대 초반 다소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3년 신용대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소득배분의 불평등 심화는 가처분소득에서 개인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
- 개인소득 감소는 민간소비지출 여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또한 비정규직, 명예퇴직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소자본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쟁이 심화됨.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5〉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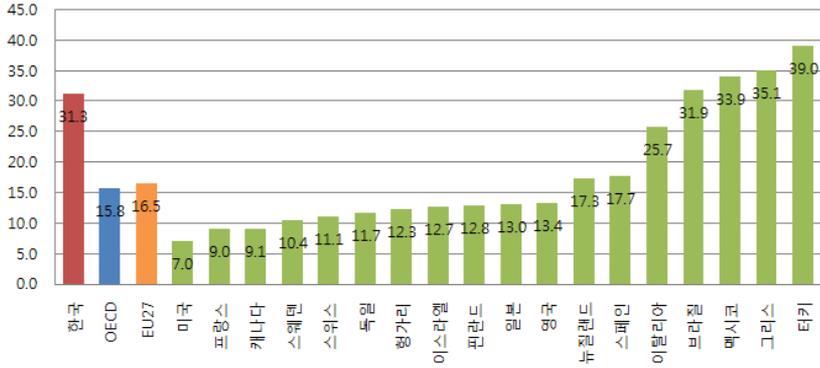
2. 국가 간 자영업의 비교와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2008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31.2%(자영업주 25.3%, 무급가족봉사자 5.9%)에 달하고 있으며, OECD 평균(15.8%)보다 15.4%p 큰 것으로 조사됨.

– 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5번째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음.

–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 비해서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단위 : %)



주 : 2008년 기준
자료 : OECD(2010), OECD Fack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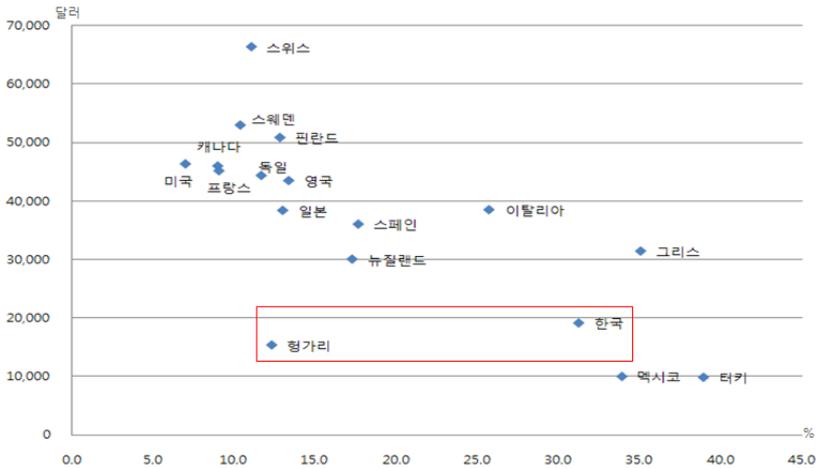
〈그림 2-6〉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감소추세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OECD 회원국의 경우, 1998년 18.6%였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17.2%, 2008년 15.8%로 하락하였고 EU 27개 국가의 경우에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03년 17.6%에서 2008년 16.5%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 역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998년 38.3%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상회하는 북미국가와 유럽 국가들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5.0~15.0% 내외이고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그리스 를 제외하고 15.0~30.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 주요국 비임금근로자 비중 변화

	1993	1998	2003	2008
한국	37.9	38.3	34.9	31.3
OECD 평균	-	18.6	17.2	15.8
EU 27개국 평균	-	-	17.6	16.5
미국	8.8	7.9	7.6	7.0
프랑스	11.7	9.9	8.9	9.0
캐나다	10.7	11.7	9.8	9.1
스웨덴	10.8	10.6	9.6	10.4
스위스	12.8	14.1	12.0	11.1
독일	10.4	11.0	11.4	11.7
헝가리	18.1	16.1	13.5	12.3
핀란드	16.0	14.3	12.9	12.8
일본	19.1	17.3	15.1	13.0
영국	15.6	13.7	13.2	13.4
뉴질랜드	21.1	20.4	19.4	17.3
스페인	25.9	22.7	18.3	17.7
이탈리아	28.9	29.1	27.5	25.7
브라질	37.9	37.7	36.4	31.9
멕시코	43.8	38.6	36.6	33.9
그리스	46.7	43.6	39.0	35.1

자료 : OECD(2010), OECD Fackbook



주 : 2008년 기준

자료 : OECD(2010), OECD Fackbook

〈그림 2-7〉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1인당 GDP

- 경제규모 증가와 비임금근로자 비중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현상을 반영함.
 - 첫째, 경제성장의 효과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경제·산업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⁵⁾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즉 경제성장에 따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주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대신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임금근로자화’ 현상이 나타남.
 - 둘째, 세계화에 따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말미암은 다국적 기업의 확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 경쟁력과 존립기반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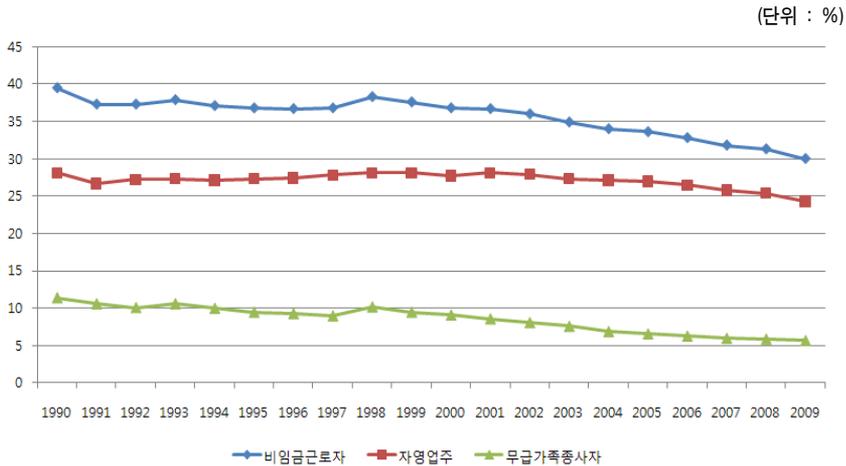
제3절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특징

1. 자영업 규모의 축소

-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09년 5,71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3%를 차지함.
 - 자영업주의 비중은 1999년 28.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2003년과 2009년에 전년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변화가 적었으나,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표 2-5> 참고).

5) 금재호 외 3인,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pp.9-10

-경제 변동에 따른 자영업 고용변동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임금근로자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영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경기불황으로 자영업 성공 확률이 낮아지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임금근로자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8〉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비중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자영업주 비중에 비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음.

6) 자영업 고용변동은 실업압박가설(unemployment push hypothesis)과 선택가설(prosperity hypothesis)로 크게 구별됨. 실업압박가설에 따르면, 자영업은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따른 변동과 기회주의적 선택으로 특별한 인적자본을 가지지 않고서도 자영업을 선택하게 됨. 선택가설에 따르면 호황국면에서 창업 및 성공 기회를 잡기 위해 자영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됨

〈표 2-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전국-전산업)

(단위 : 천명)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990	7,135	5,068	2,067	10,950	18,085
1991	6,950	4,977	1,973	11,699	18,649
1992	7,099	5,171	1,928	11,910	19,009
1993	7,291	5,258	2,033	11,943	19,234
1994	7,370	5,376	1,994	12,478	19,848
1995	7,515	5,569	1,946	12,899	20,414
1996	7,653	5,710	1,943	13,200	20,853
1997	7,810	5,901	1,909	13,404	21,214
1998	7,641	5,616	2,025	12,297	19,938
1999	7,628	5,703	1,925	12,663	20,291
2000	7,795	5,864	1,931	13,361	21,156
2001	7,913	6,051	1,862	13,659	21,572
2002	7,988	6,190	1,798	14,181	22,169
2003	7,736	6,043	1,693	14,403	22,139
2004	7,663	6,110	1,553	14,894	22,557
2005	7,671	6,172	1,499	15,185	22,856
2006	7,600	6,135	1,465	15,551	23,151
2007	7,463	6,049	1,414	15,970	23,433
2008	7,371	5,970	1,401	16,206	23,577
2009	7,052	5,711	1,341	16,454	23,5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표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전국-전산업)

(단위 :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990	39,5	28,1	11,4	60,5
1991	37,3	26,7	10,6	62,7
1992	37,3	27,2	10,1	62,7
1993	37,9	27,3	10,6	62,1
1994	37,1	27,1	10,0	62,9
1995	36,8	27,3	9,5	63,2
1996	36,7	27,4	9,3	63,3
1997	36,8	27,8	9,0	63,2
1998	38,3	28,1	10,2	61,7
1999	37,6	28,1	9,5	62,4
2000	36,8	27,7	9,1	63,2
2001	36,7	28,1	8,6	63,3
2002	36,0	27,9	8,1	64,0
2003	34,9	27,3	7,6	65,1
2004	34,0	27,1	6,9	66,0
2005	33,6	27,0	6,6	66,4
2006	32,8	26,5	6,3	67,2
2007	31,8	25,8	6,0	68,2
2008	31,3	25,4	5,9	68,7
2009	30,0	24,3	5,7	7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저숙련·저소득의 생계형 자영업 중심

○ 대부분의 자영업은 생계유지형이고 창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약 30%를 상회함.

—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형은 80.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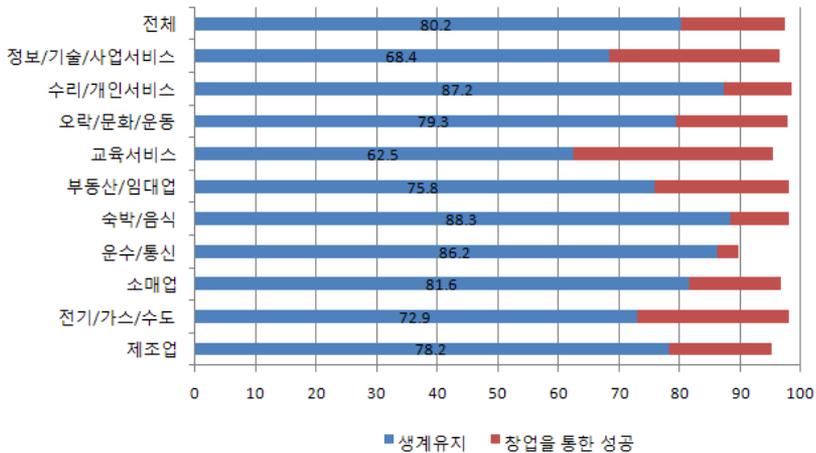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창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약 45%임.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업과 소매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임.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창업한 업종은 ‘소매업’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업’이 32.8%로 그다음으로 나타남.⁷⁾

—3년내 폐업률은 음식업이 19.7%, 소매업이 15.7%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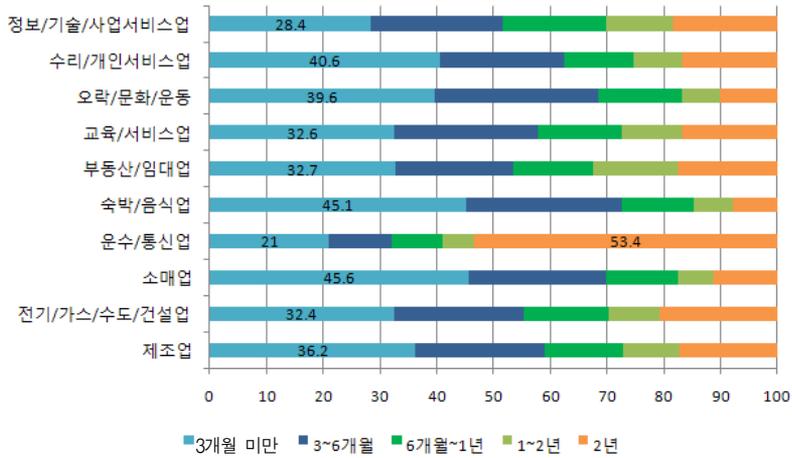
—이는 진입장벽이 낮고 짧은 기간 내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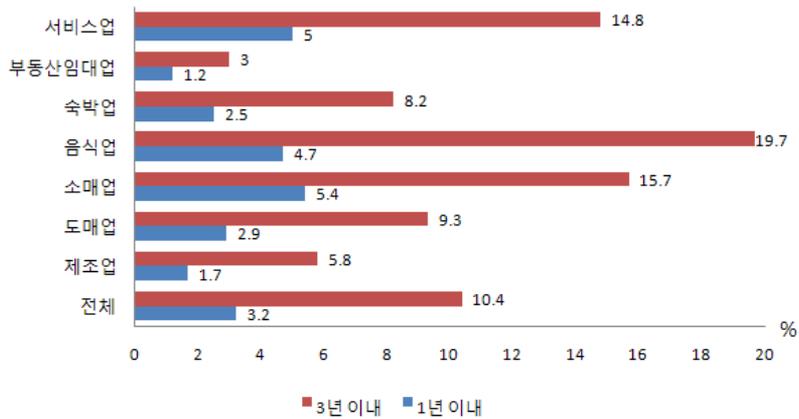
〈그림 2-9〉 업종별 자영업 동기

7) 소상공인진흥원, 2008,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 사업자 실태조사」, pp.32 재인용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그림 2-10〉 업종별 창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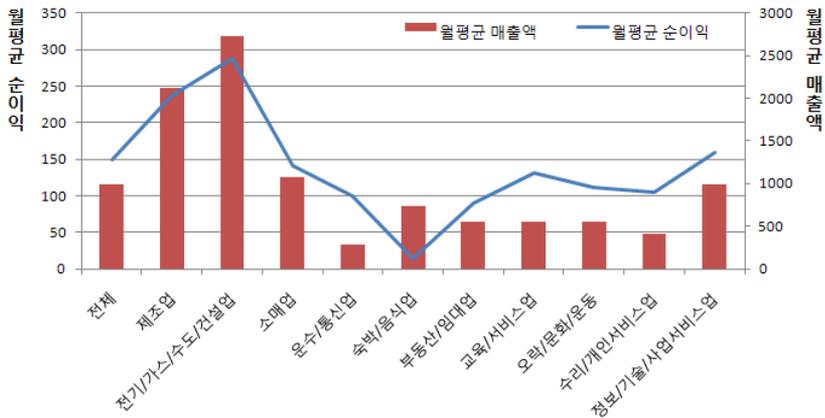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자영업 국세통계(2010)

〈그림 2-11〉 업종별·사업기간별 폐업자 비율

○ 월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을 살펴보면, 운수·통신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 음식 및 숙박업은 전체 월평균 매출액과 비슷하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2.0%로 가장 낮음.
 - 음식업 및 소매업은 생계형 업종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자영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음.
 - 저숙련의 자영업자는 생산성이 낮아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며, 대형화와 전문화를 비롯한 무분별한 과잉경쟁 속에서 경영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생계형 자영업은 ‘저숙련 - 낮은 생산성 - 낮은 소득 수준’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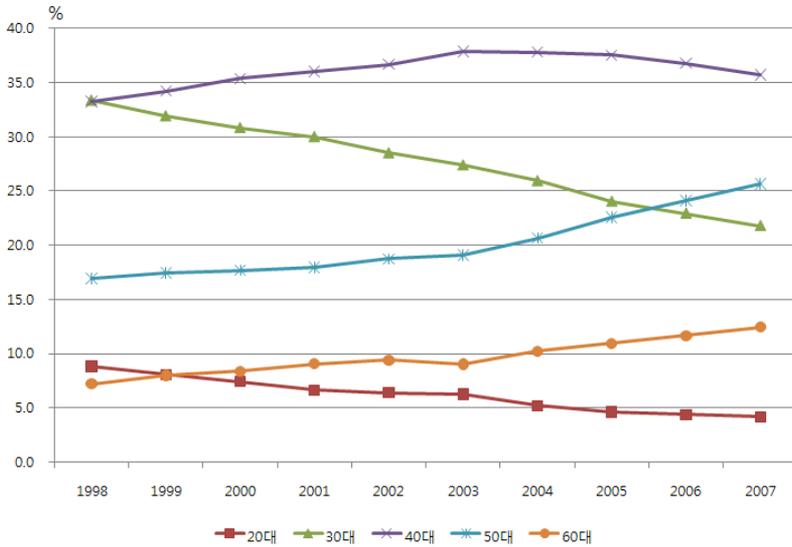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그림 2-12〉 업종별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

3. 중 · 고령 세대와 젊은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

- 1998년 이후 20~30대의 자영업 비중은 감소추세인 반면, 50~60대의 자영업 비중은 증가추세임.
- 40대의 자영업 비중은 여전히 높고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외환위기 이후 20~30대는 심화된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자의 취업상태를 선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자영업자의 고령화는 빈곤의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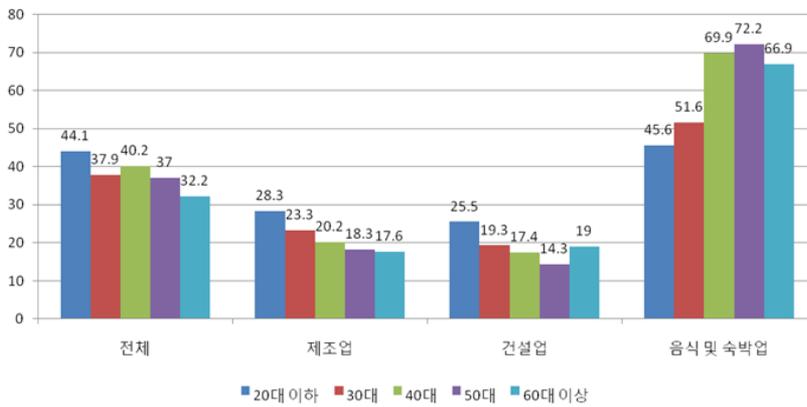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13〉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

- 자영업 성별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젊은 세대의 여성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 여성 자영업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는 44.1%, 30대는 3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8) 노동연구원, 2009, 『자영업 노동시장연구(I)』, pp.28 재인용

- 이는 경기불황과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의 기회가 젊은 여성에게 적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여성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음식 및 숙박업(66.9%)뿐만 아니라, 남성비율이 높았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20대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건설업부문의 20대 여성 자영업자는 25.5%로 전년대비 9.3%p, 제조업부문의 20대 여성 자영업자는 28.3%로 전년대비 8.9%p 증가함.



자료 : 국세청, 자영업 국세통계(2010)

〈그림 2-14〉 업종별 여성자영업자 비중

제3장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분석

- 제1절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 제2절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 제3절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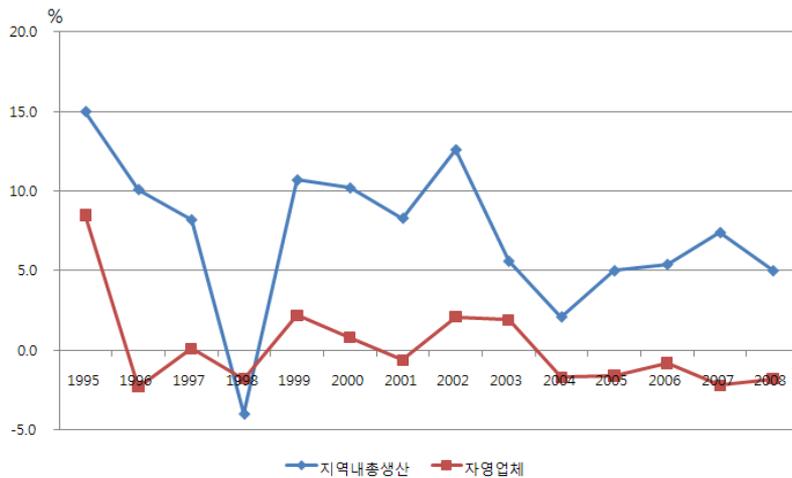
제 3 장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분석

제1절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1. 서울 GRDP와 자영업의 성장률

- 2008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한 반면, 서울의 자영업체 성장률은 -1.8%를 기록함.
 -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2003년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서울의 자영업체 성장률도 서울의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냄.
- 최근(2004~2007년) 서울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의 성장률은 -1.6%대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 내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자영업은 최근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서울 자영업 구조의 불안정과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고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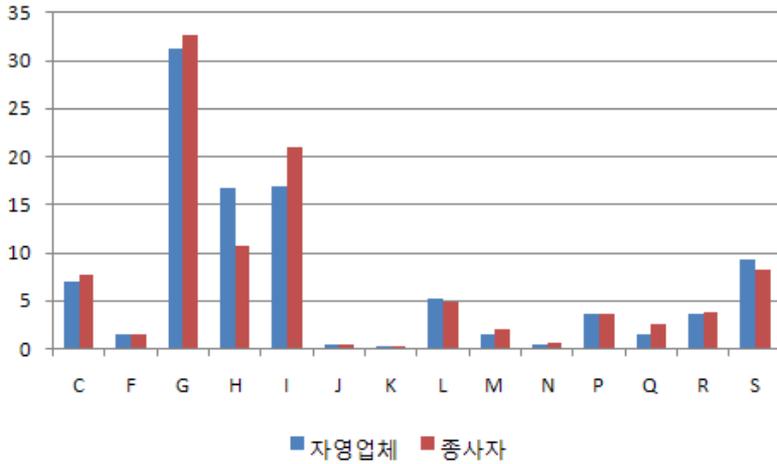


주 : 전년비 증감률 기준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1〉 서울 경제성장률 및 자영업체 증감률 추이

2. 서울 자영업의 일반 현황

- 2008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체는 502,498개(서울 전체 사업체의 69.8%)로, 자영업 종사자는 810,048명(서울 전체 종사자의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울시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큰 것으로 분석됨.
 - 이들 3개 산업(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 사업체 비중이 57.6%, 자영업체 비중이 65.0%로 규모면에서 자영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주 : <표 3-1>과 <표 3-2>를 참고하여 작성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은 업종은 자영업체 및 종사자 수가 0을 나타내어 제외됨.
 A는 농업, 임업 및 어업, B는 광업, C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O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2> 서울 자영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 서울 자영업 전체에서 도매 및 소매업은 사업체(31.3%)와 종사자(32.6%)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사업체 16.9%, 종사자 20.9%), 운수업(사업체 16.8%, 종사자 10.7%)이 서울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서울 총 종사자 비중보다 2배 정도 높은 산업은 소규모의 생계형 자영업으로 판단됨.
 - 도매 및 소매업(13.8%), 숙박 및 음식점업(11.2%), 운수업(4.6%), 협회 및 개인서비스업(3.9%), 예술 및 여가 서비스업(2.2%) 순으로 비중 차이)를 보임.

9) 비중차이는 서울 자영업 종사자 비중에서 서울 총 종사자 비중 차이를 말함

○사업체와 종사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자영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시 자영업의 구별 공간적 및 산업적 특징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표 3-1〉 2008년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와 자영업체

(단위 : 개소, %)

산업별(전 산업)	서울 사업체		서울 자영업체	
	수	비중	수	비중
계	719,687	100.0	502,49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0	0.0	0	0.0
광업	33	0.0	1	0.0
제조업	56,254	7.8(5)	35,150	7.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1	0.0	0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62	0.1	31	0.0
건설업	19,691	2.7	8,290	1.6
도매 및 소매업	209,131	29.1(1)	157,250	31.3(1)
운수업	90,617	12.6(3)	84,482	16.8(3)
숙박 및 음식점업	114,115	15.9(2)	85,051	16.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045	1.7	2,236	0.4
금융 및 보험업	9,055	1.3	987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950	5.0	26,737	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965	3.5	8,264	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055	1.3	2,654	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67	0.2	0	0.0
교육 서비스업	28,873	4.0	18,195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240	2.8	8,12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183	2.9	18,069	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6,710	9.3(4)	46,975	9.3(4)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표 3-2〉 2008년 서울시 산업별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

(단위 : 명, %)

산업별(전 산업)	서울 종사자		서울 자영업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계	4,079,277	100.0	810,04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74	0.0	0	0.0
광업	735	0.0	1	0.0
제조업	294,649	7.2	62,450	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249	0.3	0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135	0.2	56	0.0
건설업	232,612	5.7	13,244	1.6
도매 및 소매업	768,012	18.8	263,714	32.6
운수업	249,225	6.1	86,664	10.7
숙박 및 음식점업	393,802	9.7	169,035	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5,087	6.3	4,321	0.5
금융 및 보험업	241,494	5.9	1,542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052	3.5	38,721	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5,314	8.5	16,510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2,163	7.4	4,810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3,579	2.8	0	0.0
교육 서비스업	270,794	6.6	29,200	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5,599	5.0	21,168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0,624	1.7	31,803	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3,878	4.3	66,809	8.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3.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 변화 추이

○ 서울시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8년간(2000~2008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울의 총 사업체는 8년간(2000~2008년) 연평균 증가율 0.0%로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자영업체는 연평균 0.6% 감소함.

– 같은 기간 서울의 총 종사자는 연평균 1.7% 증가한 반면, 자영업체 종사자는 연평균 0.9% 감소함.

〈표 3-3〉 서울 자영업체 산업별 변화추이

(단위 : 개소, %)

산업별(전 산업)	2000	2008	연평균 증감률	서울 전체 사업체
계	527,321	502,498	-0.6	0.0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0	-13.9
광업	15	1	-28.7(2)	-11.0
제조업	40,294	35,150	-1.7	-2.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0	0.0	-4.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68	31	-33.1(1)	-15.6
건설업	5,742	8,290	4.7(2)	2.5
도매 및 소매업	187,951	157,250	-2.2(5)	-1.6
운수업	74,451	84,482	1.6(4)	1.7
숙박 및 음식점업	92,034	85,051	-1.0	-0.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850	2,236	-3.0(4)	-0.2
금융 및 보험업	1,746	987	-6.9(3)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812	26,737	2.0(3)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25	8,264	1.0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95	2,654	5.0(1)	6.9
교육 서비스업	16,190	18,195	1.5(5)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67	8,126	-0.1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855	18,069	-0.5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026	46,975	0.3	0.7

주 : 비교는 서울 총 사업체 대비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산업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대체적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5.0%(종사자 3.9%), 건설업 4.7%(종사자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종사자 1.5%) 순으로 증가함.

–반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33.1%(종사자 33.1%), 금융 및 보험업이 6.9%(종사자 5.6%),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0%(종사자 3.7%) 순으로 감소함.

〈표 3-4〉 서울 자영업 종사자 산업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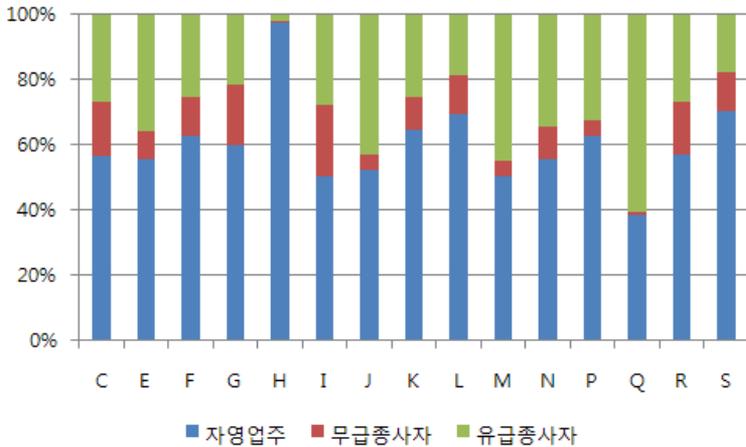
(단위 : 명, %)

산업별(전 산업)	2000	2008	연평균 증감률	서울 전체 종사자
계	871,239	810,048	-0.9	1.7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0	-9.1
광업	33	1	-35.4(1)	-9.4
제조업	73,445	62,450	-2.0	-6.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0	0.0	2.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92	56	-33.1(2)	-4.7
건설업	11,397	13,244	1.9	-0.2
도매 및 소매업	321,564	263,714	-2.4	-0.7
운수업	77,218	86,664	1.5(3)	1.7
숙박 및 음식점업	174,952	169,035	-0.4(5)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56	4,321	-3.7(4)	2.3
금융 및 보험업	2,455	1,542	-5.6(3)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709	38,721	1.4(4)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761	16,510	1.4(4)	1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48	4,810	3.9(1)	18.8
교육 서비스업	27,385	29,200	0.8	3.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409	21,168	0.5	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3,198	31,803	-0.5	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8,917	66,809	-0.4	0.7

주 : 비교는 서울 총사업체의 종사자 대비 연평균 증감률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 자영업체와 종사자 모두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서울 전체 사업체의 감소율(15.6%)이 서울 전체 종사자의 감소율(4.7%)보다 3.5배 정도 큰 것으로 보아 산업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임.
- 2008년 서울 자영업체와 종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계형 자영업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자영업체는 각각 2.2%, 1.0% 줄어 서울 총사업체에 비해 2배 정도 감소함.
 - 내수에 의존하는 생계형 자영업은 창업 및 폐업 변동치가 높고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표 3-5> 참고).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3> 서울 자영업 종사자 지위별 비중 추이

- 서울시 자영업의 종사자 지위별 비중은 약 38~97%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은 자영업주가 50% 이상에 달함.
 - 자영업주 구성비가 97%로 가장 높은 운수업은 1인 사업체의 형태를 보

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무급종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가족종사자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표 3-5〉 2008년 서울 자영업 종사자 지위별 비중추이

(단위 : 명, %)

산업별(전 산업)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유급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계	503,987	62.2	118,421	14.6	187,640	23.2
광업	1	0.0	0	0.0	0	0.0
제조업	35,263	56.5	10,308	16.5	16,879	27.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1	55.4	5	8.9	20	35.7
건설업	8,318	62.8	1,592	12.0	3,334	25.2
도매 및 소매업	157,738	59.8	48,639	18.4	57,337	21.7
운수업	84,490	97.5	484	0.6	1,690	2.0
숙박 및 음식점업	85,380	50.5	36,523	21.6	47,132	2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55	52.2	215	5.0	1,851	42.8
금융 및 보험업	995	64.5	155	10.1	392	2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870	69.4	4,628	12.0	7,223	18.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17	50.4	764	4.6	7,429	4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74	55.6	483	10.0	1,653	34.4
교육 서비스업	18,274	62.6	1,448	5.0	9,478	3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55	38.5	194	0.9	12,819	6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141	57.0	5,155	16.2	8,507	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085	70.5	7,828	11.7	11,896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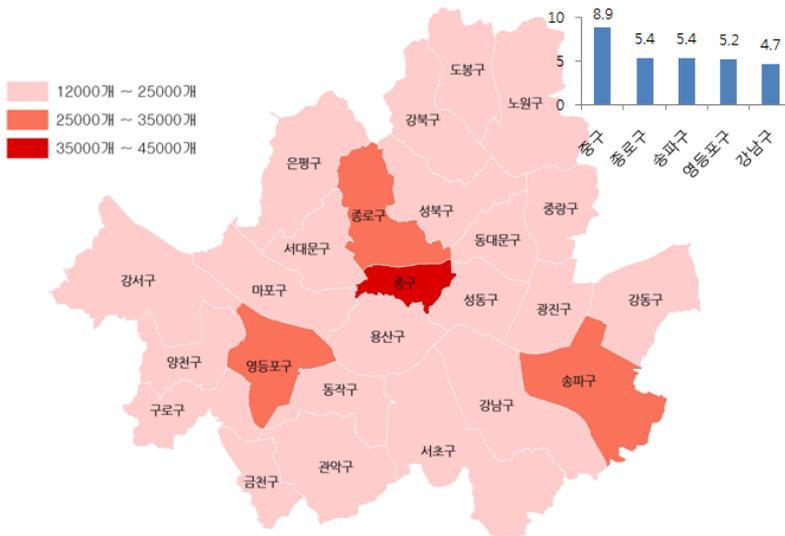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제2절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1.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 분포

1) 자영업체 수(절대 비중)

- 자치구별 자영업체 수를 비교함으로써 서울시 자영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봄.
- 서울시에서 자영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44,722개)로 나타남.
 - 서울시 자치구별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 도심(중구, 종로구)과 부도심 지역(송파구, 영등포구)에 집중되어 있음.
 - 가장 밀집된 지역인 중구에는 서울시 자영업체의 8.9%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어 종로구(27,301개), 송파구(27,061개), 영등포구(26,115개), 강남구(23,464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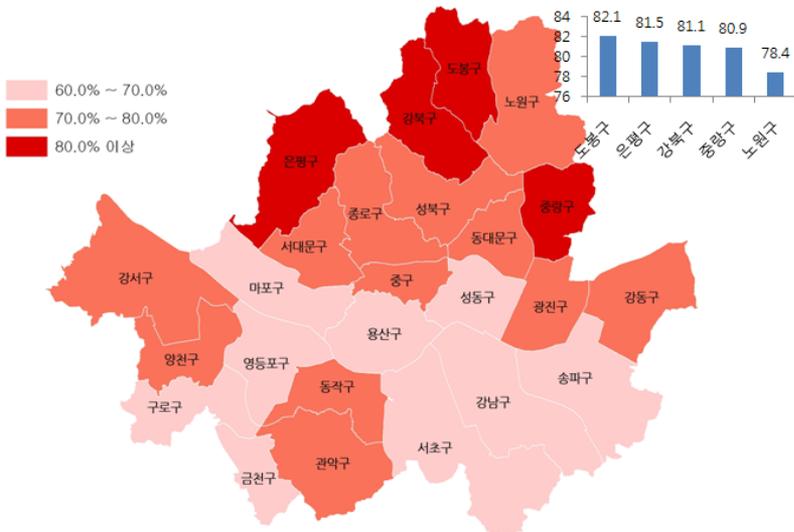


주 : 막대그래프는 서울시에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자치구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4〉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분포

2)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상대 비중)

- 자치구별로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치구 사업체 중 자영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자영업이 서울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그 위상이 크고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보다 강북지역이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체의 비중은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높으며, 이들 지역의 비중을 합치면 80%를 상회함. 그러나 강남구와 서초구는 자영업체 비중이 각각 45%, 50%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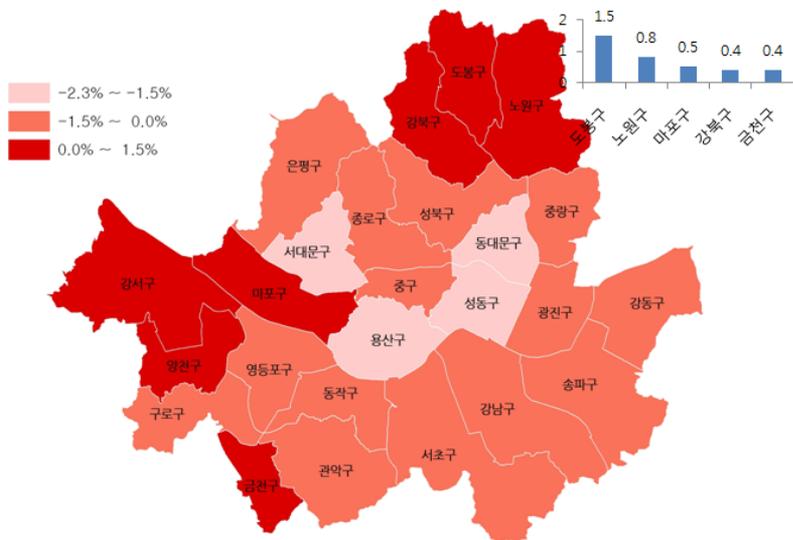


주 : 막대그래프는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자치구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5〉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비중

3) 자영업체 성장률

-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영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을 자치구별로 살펴봄으로써 자영업체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을 파악함.
- 서울시 자영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도심지역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자영업체 성장률은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순으로 감소함.
 - 서울시 자영업체 성장률이(2000~2008년) 높은 지역은 강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과 강서권(마포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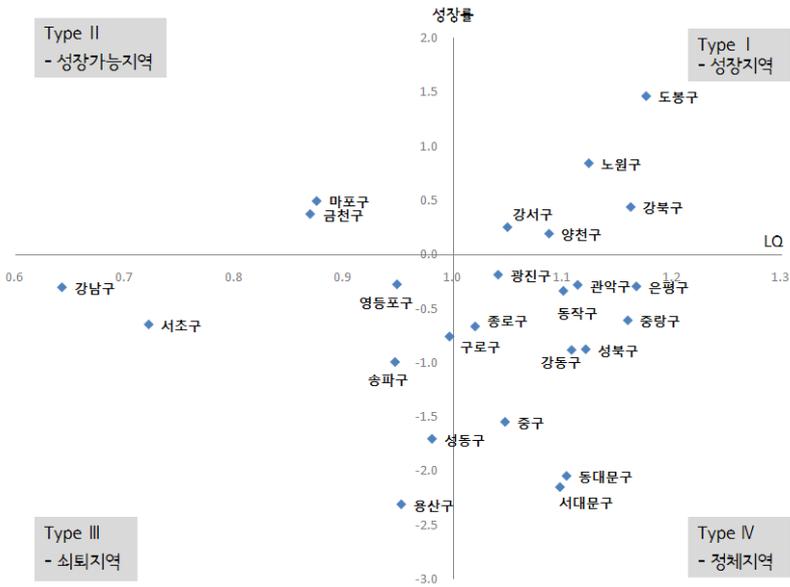


주 : 막대그래프는 자영업체의 연평균 증가율(2000-2008년)이 높은 상위 5개 자치구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조사」, KOSIS

〈그림 3-6〉 자치구별 서울시 자영업체 성장률

2.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 서울시 자영업체 성장률과 입지상 계수(LQ: Location Quotient)¹⁰⁾를 기준으로 서울시 공간적 특성을 살펴봄.
- 성장률과 특화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4가지 타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타입 I: 강북의 3구(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강서권(강서구, 양천구)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타입 II: 마포구와 금천구는 자영업체 비중은 낮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타입 III: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부도심(영등포구, 구로구, 용산



〈그림 3-7〉 서울시 자영업체 지역별 특성

10) LQ(특화도) = (a자치구 자영업체 수 / a자치구 총 사업체 수) / (서울 자영업체 수 / 서울 총 사업체 수)

구)을 중심으로 자영업체 비중이 낮고 성장률도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임.

-타입 IV: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은 자영업체 비중이 높지만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정체지역에 속함. 따라서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서울시 자영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하면 8개 권역으로 구분됨.

〈표 3-6〉 서울시 자영업 권역별 특성

구분	지역	특화도	성장률	
타입 I	강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LQ >> 1	++
	강서권	강서구, 양천구	LQ > 1	+
타입 III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LQ << 1	-
	영등포권	영등포구, 구로구	LQ < 1	-
타입 IV	중부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LQ > 1	--
	관악권	관악구, 동작구	LQ > 1	-
	강동권	광진구, 강동구	LQ > 1	-
	중랑권	중랑구, 성북구	LQ >> 1	-

주: 특화도 >>는 1.1 이상, <<는 0.8 이하
 성장률 ++는 0.5% 이상, --는 -1.5% 이하를 의미
 타입 II는 지역별 특징만 나타나고 권역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됨

제3절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특성

- 2008년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 비중의 상위 8개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공간특성을 분석함.

〈표 3-7〉 주요 업종

대분류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 : 9차 개정 표준산업분류(KSIC 9) 기준

- 주요 8개 업종을 기준으로 사업체의 분포도(절대비중)와 특화도(상대비중)를 비교하여 산업별 공간분포를 살펴봄.

— 분포도는 서울시 내 자치구별 자영업체 수를 비교함으로써 산업별 자치구에서의 분포를 알아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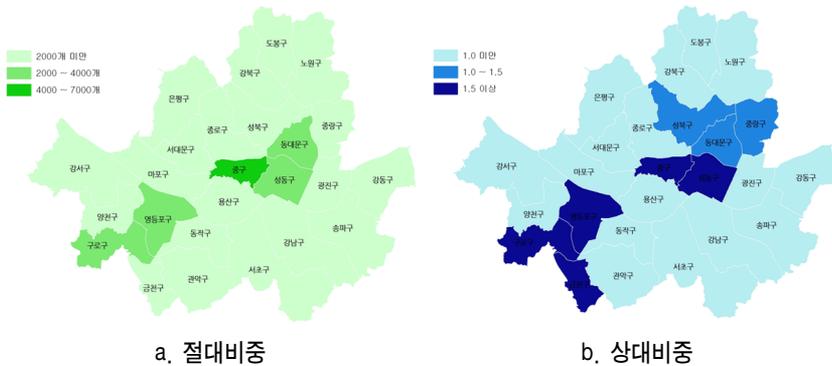
- 분포도 = a자치구의 b산업 자영업체 수 / 서울 b산업 자영업체 수

— 특화도는 어떤 지역 산업의 서울시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별로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보여줌.

- 특화도(LQ) = (a자치구 b산업 자영업체 수 / a자치구 총 사업체 수) / (서울 b산업 자영업체 수 / 서울 총 사업체 수)

1.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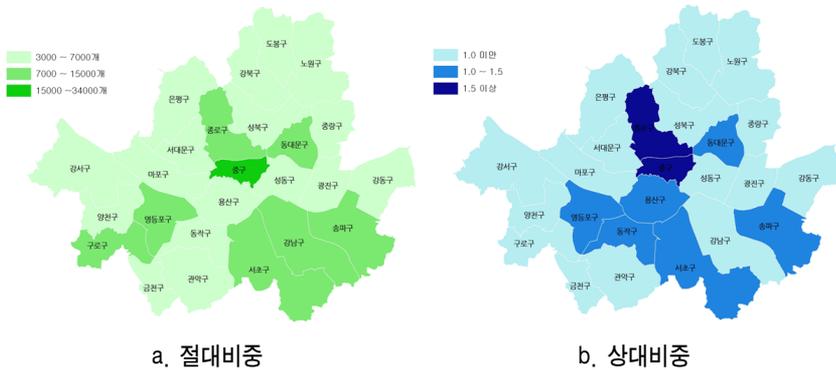
- 제조업은 중구에 밀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제조업체가 2천 개 이하로 나타남(<그림 3-8>의 a참고).
 - 중구는 6,983개(17.3%)로 다른 구보다 2배 정도 밀집되어 있고 이어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특화도는 평균 0.9이고 성동구(2.0), 중구(1.8), 구로구(1.8), 금천구(1.5), 영등포구(1.5)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그림 3-8>의 b참고).
 - 성동구를 중심으로 하여 중부권(중구, 동대문구)과 중랑권(성북구, 중랑구) 등 주변지역에 특화되어 있음.
 - 준공업지역(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은 특화도 1.5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8) 제조업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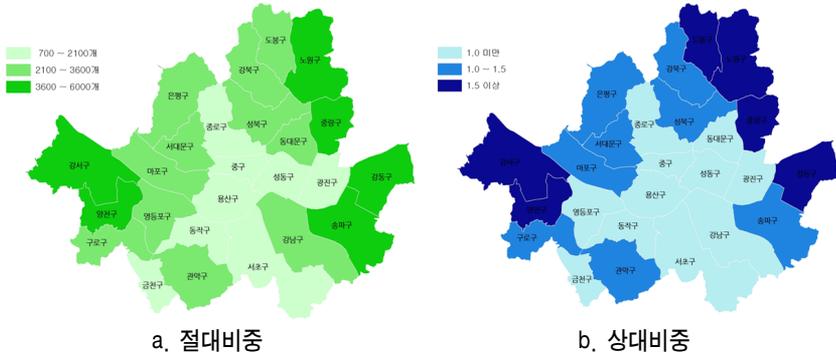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의 분포는 크게 중부권(중구, 종로구), 강남권(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으로 구분됨(<그림 3-9>의 a참고).
 - 도매 및 소매업은 중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이어 종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특화도는 평균 0.9이고 중구와 종로구는 특화도 1.9, 1.5로 발달되어 있음(<그림 3-9>의 b참고).
 - 용산구(1.2), 서초구(1.1), 동대문구(1.1) 등 특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음.
-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 중부권은 서울시 총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10%)이 높을 뿐 아니라 중요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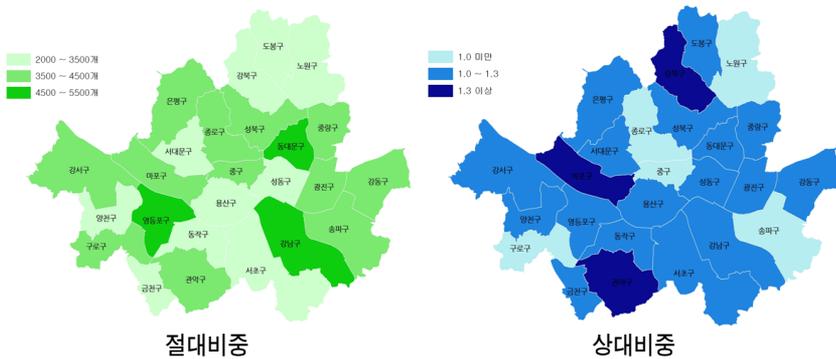
<그림 3-9> 도매 및 소매업의 공간분포

- 운수업은 도시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원구, 강서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음(<그림 3-10>의 a참고).
 -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운수업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산업에 비해 특화되어 있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2.0 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임(<그림 3-10>의 b참고).
 -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순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화도 1.5 이상을 보이고 있음.
- 강동구를 비롯하여 강북권(노원구, 중랑구)과 강서권(강서, 양천구)을 중심으로 운수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화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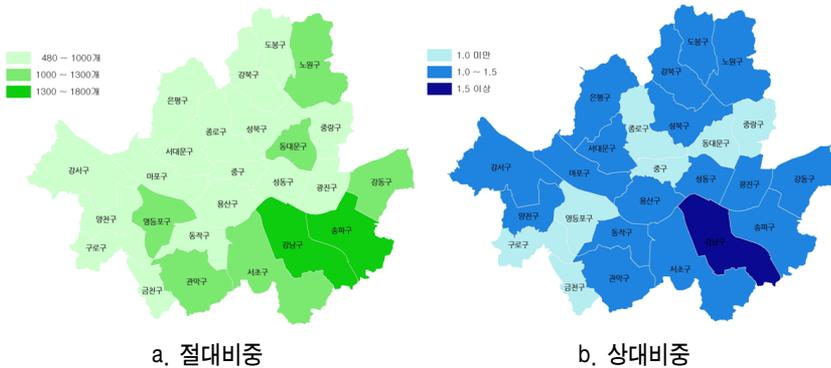
〈그림 3-10〉 운수업의 공간분포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하여 밀집되어 있고 서울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그림 3-11〉의 a참고).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영등포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동대문구,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화도는 평균 1.0이고 관악구, 강북구, 마포구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그림 3-11〉의 b참고).
 - 도심부(중로구, 중구)와 노원구, 송파구, 구로구는 특화도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
 - 강북구는 특화도가 1.3으로 높은 반면, 분포도는 낮게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1〉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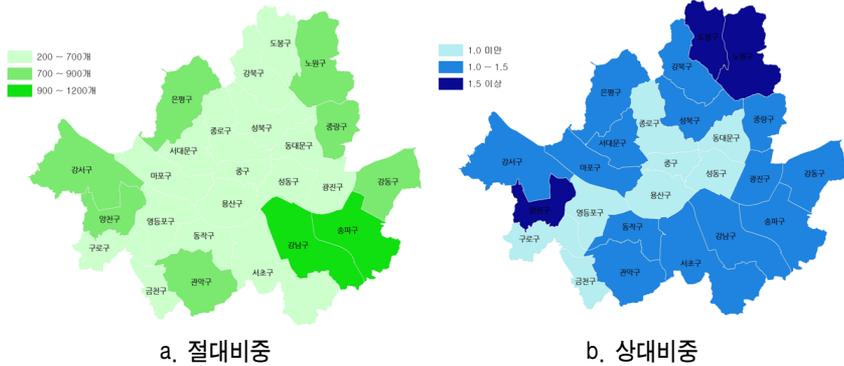
-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강남권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그림 3-12>의 a참고).
 -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강남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 부동산 및 임대업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발달되어 있고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특화되어 있음(<그림 3-12>의 b참고).
 - 강남구는 1.7 이상의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음.
 - 그다음은 서초구,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



(그림 3-12) 부동산 및 임대업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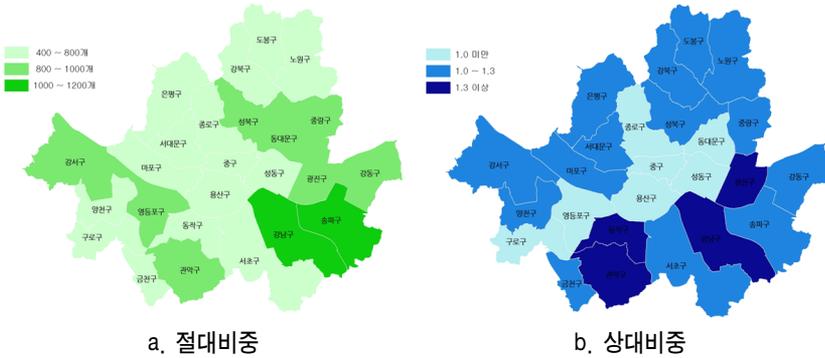
- 교육 서비스업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송파구와 강남구에 밀집되어 있음(<그림 3-13>의 a참고).
 - 교육 서비스업은 송파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강서구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교육 서비스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발달되어 있고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에 특화되어 있음(<그림 3-13>의 b참고).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서울시 대부분 지역은 특화도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3) 교육서비스업의 공간분포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강남구와 송파구에 밀집되어 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그림 3-14>의 a참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강남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송파구, 관악구, 강동구, 광진구 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발달되어 있고 도심과 부도심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특화되어 있음(<그림 3-14>의 b참고).
 -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광진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순으로 나타남.
-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는 특화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밀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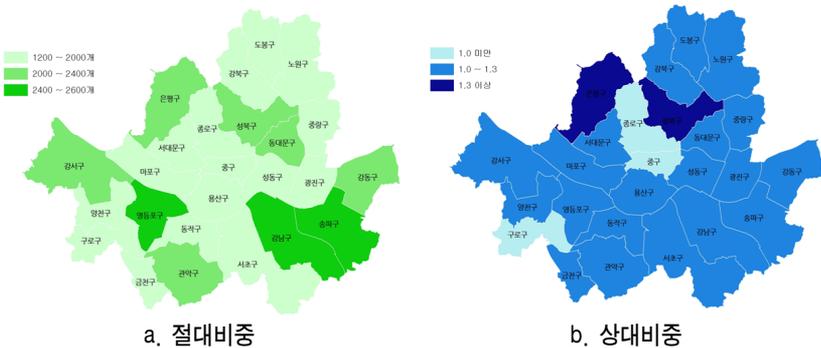
〈그림 3-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공간분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에 밀집되어 있음(<그림 3-15>의 a참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송파구에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이어 강남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내고 있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특화도는 평균 1.1로 다른 산업에 비해 발달되어 있으며,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 고르게 발달되어 있음(<그림 3-15>의 b참고).

–특화도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순으로 특화되어 있음.



〈그림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공간분포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공간적 특성

1) 분석의 개요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와 산업별 클러스터 여부(Getis and Ord의 Local G 분석 통계량 활용)를 참고하여 산업별 공간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앞에서 분석한 자영업의 산업별 사업체 비중과 특화도(IQ)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항목당 3점을 배점하여 두 지표의 합계로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를 평가함.

- 사업체 비중은 산업별로 평균의 상위 30%, 40%, 하위 30%로 구분하여 각각 3점, 2점, 1점으로 배점함.
- 특화도는 산업별로 LQ 1.0 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각 3점, 2점으로 배점하고 LQ 1.0 미만이면 1점으로 배점함.

<표 3-8> 평가 항목 및 기준

항 목	평가 기준	배점 기준	배점	비고
사업체 비중	$\frac{a\text{ 자치구의 } b\text{ 산업 자영업체 수}}{\text{서울 } b\text{ 산업 자영업체 수}}$	평균의 상위 30%	3점	두 지표의 합계로 특화산업의 집적도를 구분
		평균 40%	2점	
		평균의 하위 30%	1점	
특화도(LQ)	$\frac{a\text{ 자치구 } b\text{ 산업 자영업체 수}}{\frac{a\text{ 자치구 중 사업체 수}}{\text{서울 } b\text{ 산업 자영업체 수}}}$	LQ 1.0 이상의 평균 이상	3점	6점 - 매우 강함 ◎ 5점 - 강함 ○
		LQ 1.0 이상의 평균 미만	2점	
		LQ 1.0 미만	1점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공간적 특성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와 클러스터 형성 여부는 <표 3-9>와 같음.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시 전역에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의 경우 집적도가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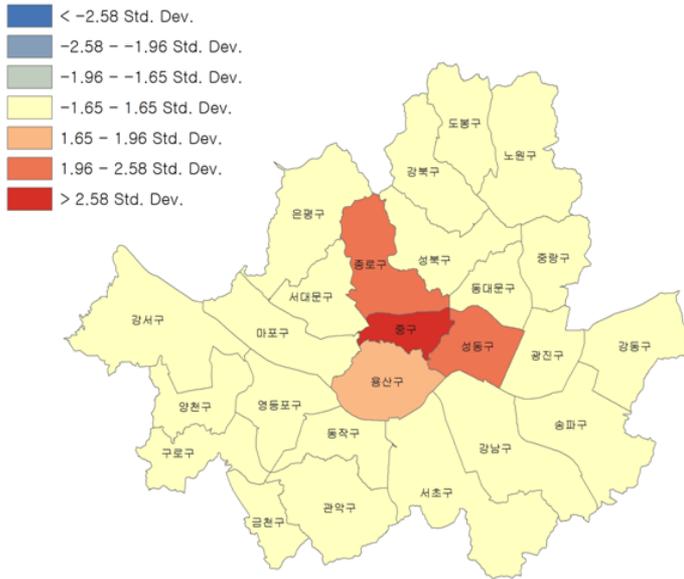
〈표 3-9〉 지역별 산업의 집적도와 클러스터 형성 여부

	제조업	도매업	운수업	숙박음식	부동산	교육	여가	개인
종로구		◎						
중구	◎	◎						
용산구								
성동구	◎			○				○
광진구				○		○	○	○
동대문구	○	○		◎				
종량구			◎	○				
성북구				○			○	○
강북구				○			○	○
도봉구			○			○		
노원구			◎		○	◎		
은평구				○		○		○
서대문구				○			○	○
마포구				○	○			○
양천구			◎		○	○	○	○
강서구			◎			○		○
구로구	◎							
금천구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	○
관악구				○	○	○	○	○
서초구					○			○
강남구				○	◎	◎	◎	◎
송파구		○	○		◎	◎	○	◎
강동구			◎	○	○	◎		○

주 : ◎ 산업의 집적도 매우 강함, ○산업의 집적도 강함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 제조업은 종로구, 중구, 성동구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남.
- 용산구는 유의 수준 10%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만, 산업의 집적도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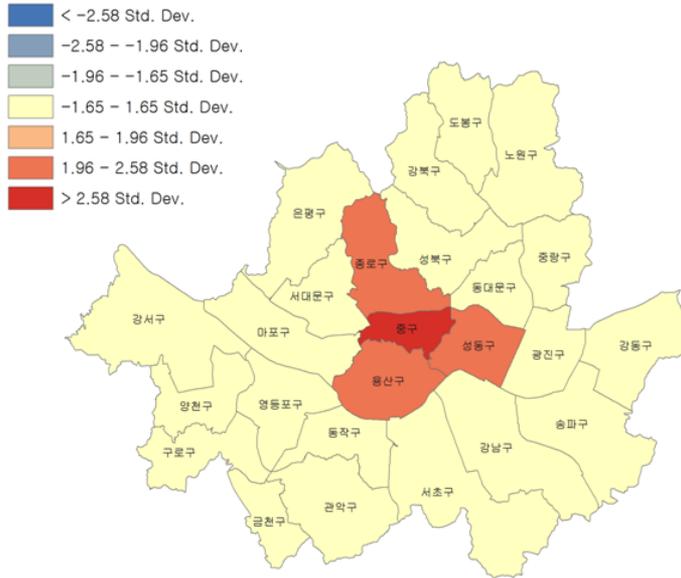
○영등포구는 산업의 집적도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클러스터가 깨져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16〉 제조업 G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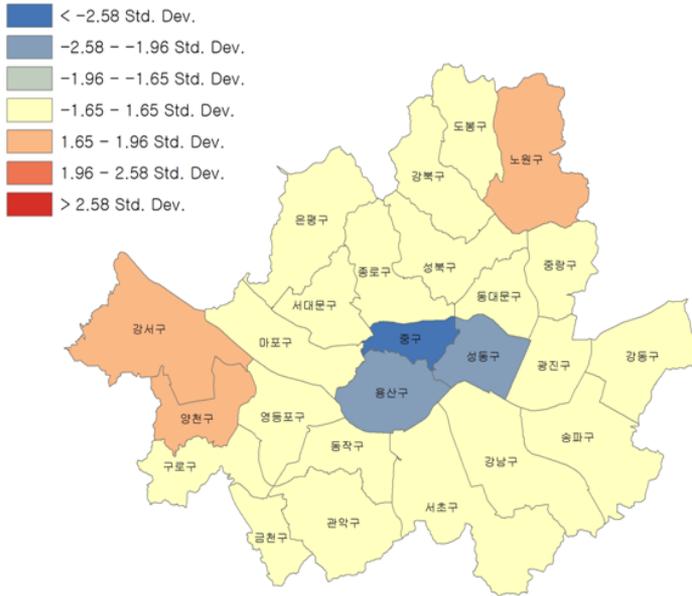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은 도심부(종로구, 중구)에서 사업체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남.

○용산구, 성동구는 유의수준 5%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만, 산업의 집적도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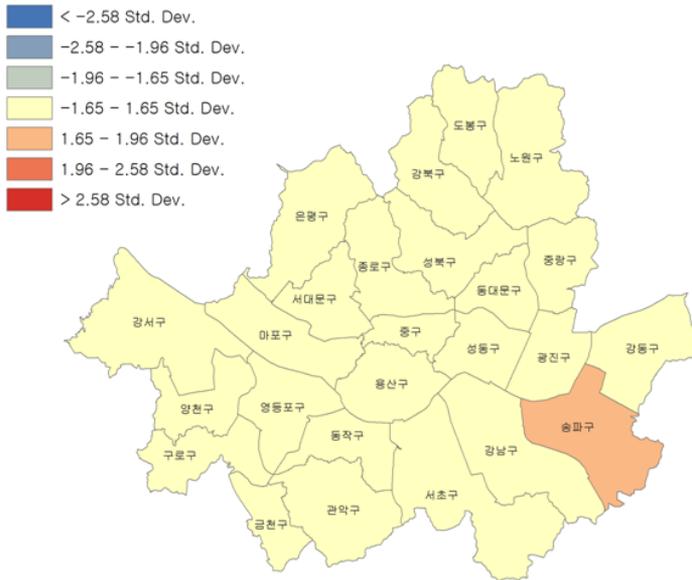


〈그림 3-17〉 도매 및 소매업 G통계

- 운수업은 강서권(양천구, 강서구)과 강북권(도봉구, 노원구)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며, 도봉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고르게 산업의 집적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클러스터는 송파구(유의수준 10%)에서만 형성되어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클러스터가 깨져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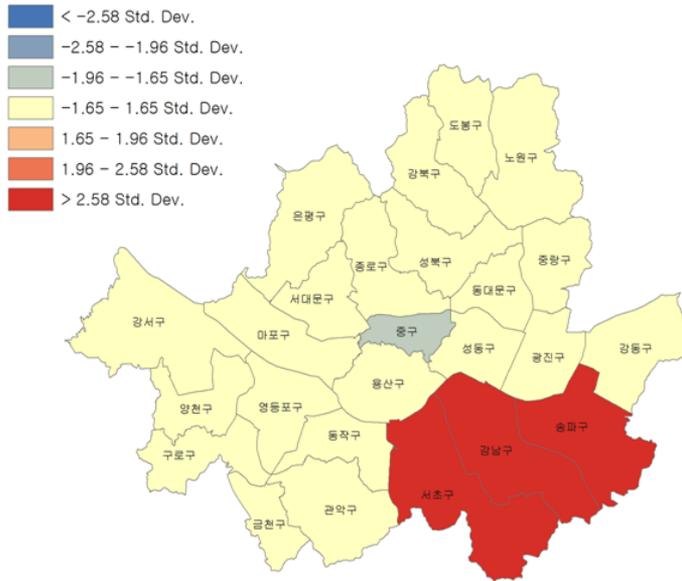


〈그림 3-18〉 운수업 G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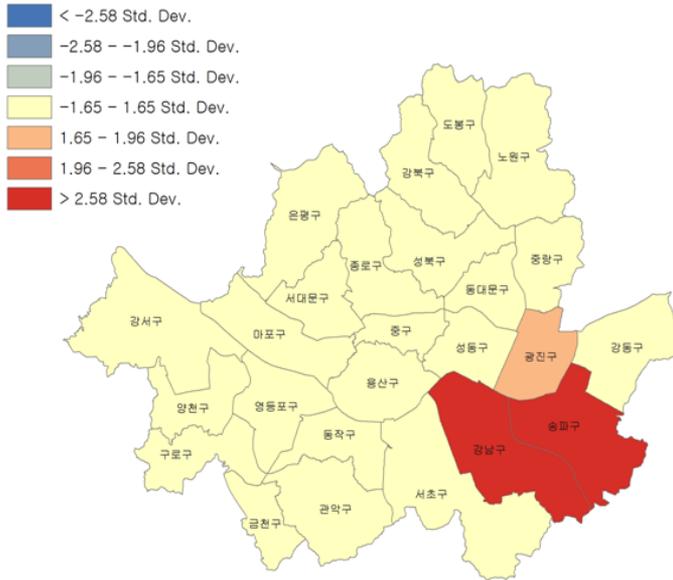
〈그림 3-19〉 숙박 및 음식점업 G통계

- 부동산산업 및 임대업은 강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며, 유의수준 1%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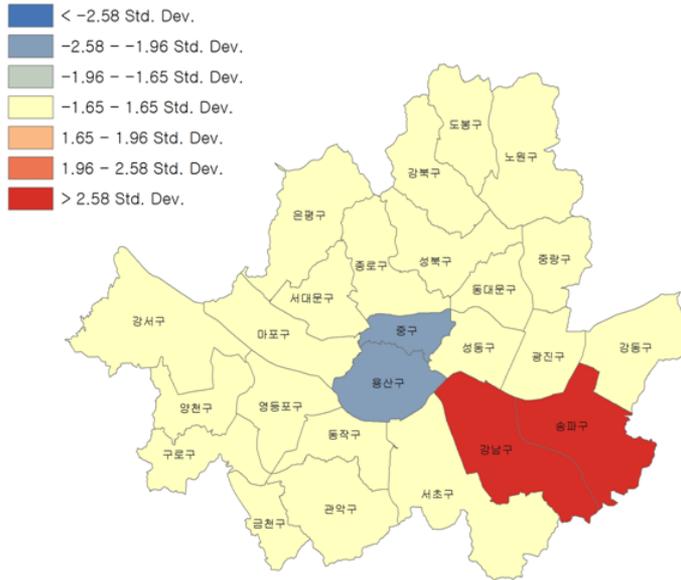
〈그림 3-20〉 부동산산업 및 임대업 G통계

- 교육 서비스업은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며, 유의수준 1%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노원구와 양천구는 산업의 집적도가 높지만, 클러스터는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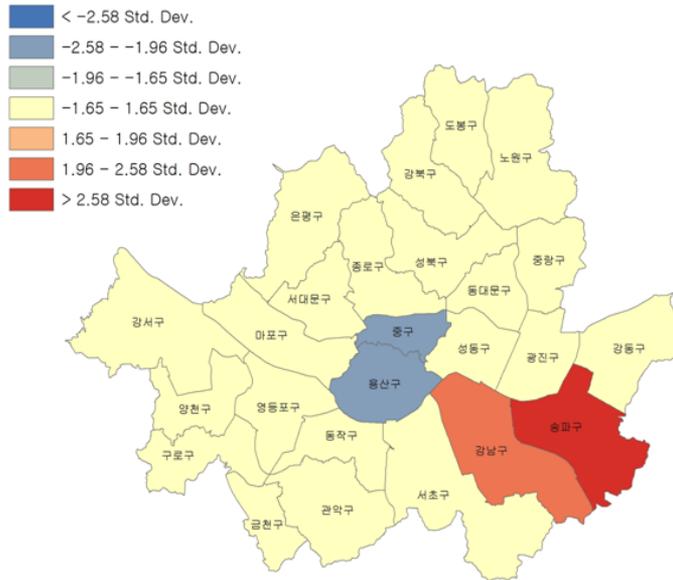


〈그림 3-21〉 교육 서비스업 G통계

-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에서 산업의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며, 관악구를 제외한 강남권에 클러스터(유의수준 1%)가 형성되어 있음.
-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고른 산업의 집적도를 보여주고 강남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클러스터는 송파구(유의수준 1%)와 강남구(유의수준 5%)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림 3-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통계



〈그림 3-2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G통계

3) 서울시 자영업의 권역별 산업 특성

○ 산업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권역별 공간 특성¹¹⁾을 살펴보면 크게 3개 권역에서 산업별 공간 특성이 나타남.

- 강서권(강서구, 양천구)은 자영업체 비중이 높고 성장세를 보이는 성장 지역(타입 I)으로 운수업이 집적되어 있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도심부(중구, 종로구)는 자영업체 비중이 높지만 성장률은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정체지역(타입 IV)으로 제조업과 도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강남권은 자영업체 비중이 낮고 성장률도 감소세를 보이는 쇠퇴지역(타입 III)으로 부동산업, 교육, 여가,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권역별 산업특성이 나타나지 않음.

〈표 3-10〉 서울시 자영업체 권역별 산업 특성

구분	지역	특화도	성장률	집적·클러스터 산업
타입 I	강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LQ >> 1	++	-
	강서권 강서구, 양천구	LQ > 1	+	운수업
타입 III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LQ << 1	-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영등포권 영등포구, 구로구	LQ < 1	-	-
타입 IV	중부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LQ > 1	--	제조업, 도·소매업
	관악권 관악구, 동작구	LQ > 1	-	-
	강동권 광진구, 강동구	LQ > 1	-	-
	중랑권 중랑구, 성북구	LQ >> 1	-	-

11) 자영업체 성장률과 입지상 계수(LQ)를 기준으로 서울시 권역별 공간 특성을 구분함

제4장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 검토

제2절 서울시 시책 검토 및 개선방향

제 4 장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 검토

1.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1)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

- 정부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자영업 부문의 이례적인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불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31일에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함.
 - －이 대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였음.
 - －기본방향은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과잉진입 예방, 지역중심의 지원체제로 정리할 수 있음.
- 5·31대책의 내용은 크게 과잉진입 방지,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경영안정 지원,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등 네 가지로 요약됨(<표 4-1> 참고).
 - －과잉진입 방지는 도산·폐업의 증가,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자영업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빈곤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짐.
 - －창업자의 숙련을 위한 창업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하고 상권 정보도 제

- 공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업종으로 진입을 유도함.
- 개인서비스업에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운송허가제와 택시지역총량제를 통해 과잉 진입을 방지함.
- 정년퇴직 이후에도 가급적 임금근로자 상태를 지속하도록 고용연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함.
-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과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자영업체 70만 개를 대상으로 개별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30만 개에 대해서는 ‘취약점포’와 ‘성장가능점포’로 구별하여 교육을 시행함.
- 소매업·음식업·미용업 등 과당 경쟁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실시함.
- ‘성장가능점포’로 판정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자영업자의 신용평가를 위한 표준 신용조사서 및 신고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지역신보’를 자영업 전문보증기관으로 활용함.
- 경영개선 비용 지원, 자영업자의 고객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대책을 시행함.
- 금융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1만 5,300명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신용을 회복시킴.
-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과 관련하여 경영상태 악화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의 자영업자에게는 전업이나 전직을 유도함.
-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문과 함께 전직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4-1〉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

1. 과잉 진입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업종별 경영실태 및 상권 정보 보급·홍보로 과잉 진입 예방 - 창업지원사책 및 업종별 진입기준 정비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 유도 	
정책 과제	세부 사업
자영업 경영실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별·업종별 자영업 경영지표 개발·보급 - 자영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대상 확대
전국 500개 상권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지역별·업종별 밀집도 지수, 상권변동사항 조사
창업지원사책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지원 시 컨설팅·교육 의무화 - 소상공인 특례보증시 창업지원비율 축소
개인서비스업 전문 자격제도 강화	- 창업 전문교육제도 도입
화물운송허가제, 택시지역총량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 - 화물운송업체의 M&A 유도 및 부실업체 퇴출 -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제 시행 - 지역특성에 맞춘 적정 면허대수 운영 - 장기 유휴차량에 대한 자발적 감차제 도입
중고령자의 고용연장 지원	- 임금파크제 도입
2.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심의 컨설팅 및 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점포에 따라 경영안정지원·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개별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07년까지 자영업체 70만 개 대상 컨설팅, 30만 개 대상 교육 실시 - 컨설팅 소요경비의 80% 지원(50만원 범위) - 사업전환·퇴출컨설팅 경비 100% 지원
지역별 자영업자 컨설팅 본부 설치	- 지역신보·컨설팅협회·프랜차이즈협회 및 민간교육기관 등 참여
3. 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가능점포에 대해 시설 개체·정보화 등을 선별 지원 -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편 납세제도 도입, 신용회복 지원 	
성장가능점포 선별 지원	- 경영개선 소요비용 지원
지역신보를 자영업 전문보증기관화	- 표준 신용조사서 및 신용 평가모델 개발·보급
자영업자의 정보화 지원	-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등 개발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감면 - 간편 납세 제도 도입
금융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신용회복	- 153만 명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및 이자 면제

〈표 계속〉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

4.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이 없는 점포의 사업전환 및 퇴출 유도 - 퇴출희망자에게 재취업 알선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새로운 취업기회 제공 	
정책 과제	세부 사업
전직 희망자 대상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전환, 점포이전 및 정리, 세무·청산 자문 - 노동부 전직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알선
건실한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알선 - 가맹점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시행	-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제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	
5. 프랜차이즈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사업자(본부)를 제조업과 동등하게 지원 	
프랜차이즈 육성법(가칭) 제정	- 공동물류단지 개발, 단체인증제 도입 등 지원근거 마련
6. 건전한 자영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영업자, 창업희망자 등에게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자영업 관련 단체·협회 등을 통해 설명회 개최 	
자영업 경영실태와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상권정보, 경영지표 제공 - 창업 성공·실패 사례집의 정기적 발간
홍보강화로 성과 극대화	- 표준 신용조사서 및 신용평가모델 개발·보급

2) 5·31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의의 및 문제점

○ 5·31 대책은 자영업자를 위한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며, 직업훈련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음.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자영업자도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에게 상권정보, 경영컨설팅 및 교육, 경영개선비용 지원, 정보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대책은 정책수행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며 구체적으로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자영업은 성격과 특성이 다양·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포’와 ‘성장가능점포’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과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
 - 개인서비스 전문자격제도와 허가제 도입은 정부가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조치로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야 할 자영업의 특성을 간과하였음.
 - 자영업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5·31 대책의 대상은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 운송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 업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영업의 경우 전통적 업종이 주를 이루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교육, 보건 및 복지,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자영업 종사자들이 새로 성장하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괜찮은 일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함.
- 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이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자발적 의사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수임.
 - 자영업자의 자립·자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는 재해보험과 같이 모든 국민이 조세나 보험료를 정부나 보험기관에 납부하고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체제가 이상적임.

2. 중앙부처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크게 자금,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시설지원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와 같음.
 - 정책별 사업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로 집행되며, 몇 개의 사업은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음.
- 자금정책은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지원대상과 용자범위 및 조건에 따라 구분됨.¹²⁾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함.
 - 스마트숍 육성자금은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산업코드 47121)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산업코드 47129)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지원 범위는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등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공제금 제도는 자영업자가 폐업 등의 어려움에 부딪치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개월 이상 납부하면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해 줌.
- 자영업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경영개선, 창업패키지, 혁신아카데미, e러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경영개선교육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을 주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음.
 - 기초교육 :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한 특강형식으로 경영개선 동기부여
 - 전문교육 : 소그룹형태의 토론, 실습, 성공한 업체 탐방 등 20시간 내외의 실천중심의 집합교육 및 현장체험교육

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부록 2 참고

-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은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적성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지원, 사회관리의 6단계 패키지형 지원을 하고 있음.
- 혁신아카데미는 업종별 단체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장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의 교육센터에서 제공함.
- e 러닝교육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사업장이나 집에서 점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인터넷 교육으로 창업교육과 경영교육으로 구분됨.
 - 창업교육 : 업종분석, 아이템 선정, 자금계획, 창업자정신 등 창업준비 과정으로 구성
 - 경영교육 : 음식, 슈퍼·체인, 이용·미용, 프랜차이즈, 제과, 소호 등 12개 업종별 전문과정으로 구성
- 전문기를 활용하여 자영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고 있음.
 - 자영업컨설팅이란 전문인력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상담해 주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업종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청자에 한해서 예비진단을 거쳐 분야별, 업종별 영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임.

〈표 4-2〉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집행기관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 지원대상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10인 미만) - 용자규모 : 2,0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스마트숍 육성자금	- 소매점의 고객 및 매출증가를 위해 시설 개선, 경영 개선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매장면적 300㎡이하 소매점의 사업주 - 주 대상 : 슈퍼마켓, 기타 식품료품 위주 - 용자규모 : 1,0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공제자금	-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 시 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
교육	소상공인경영개선 교육	-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색화된 교육제공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주 대상 :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세탁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 창업적성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지원, 사후관리의 6단계 패키지형 지원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예정자	소상공인지원센터
	혁신 아카데미 운영	-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지원 - 지원대상 : 업종별 단체,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점별 교육센터)
	소상공인 e러닝교육	- 창업 및 경영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무료 인터넷 교육 서비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법률 구조 지원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등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매점 조직화 지원	-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및 전문인력의 가맹점 지도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임의 가맹점형 또는 조합형 체인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 제공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 영업노하우, 경영정보, 성공사례 등에 관한 케이블 방송 서비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권정보 시스템	- 지역별·업종별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전자지도로 제공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 50명 이상 중소기업종합소매업자(공동), 10인 이상 중소기업도매업자(공동)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및 지방중소기업청

- 소규모 소매점포가 체인본부를 구심점으로 조직화하고 점포운영을 현대화하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체인본부의 소속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가맹점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기법, 재고관리 등 경영전반을 지도함.
 - 체인본부의 슈퍼바이저 지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의 직무 및 매뉴얼, 우수업체 현장투어,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함.
-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 상권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자영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
 - 소상공인 케이블 방송은 매일 3시간씩 창업정보, 경영 노하우, 신사업 아이템, 해외사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 상권정보 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를 전자지도로 제공함.
 - 동종 및 경쟁 업체 수, 유동인구 정보로 특화된 상권정보, 상권 커뮤니티 및 과밀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중소 소·도매업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50명 이상의 중소 종합소매업자 또는 10명 이상의 중소도매업자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60%, 30%를 지원하고 민간이 10%를 부담함.

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금과 교육정책을 위주로 자영

업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자영업 창업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여성가장에게 대여하고 전세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매월 납부하게 함.
 - 지원조건은 임차 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점포만 가능하고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함.
-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함.
 - 훈련기간 동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훈련생에게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원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기관에 신청함.
 - 훈련기관에는 평생교육원, 학원, 사업단체, 시립직업전문훈련학교 등이 있음.

〈표 4-3〉 고용노동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집행기관
자금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	- 실직여성가장에게 생계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희망점포에 대한 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녀 및 가족 부양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직여성가장	근로복지공단
교육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각종 훈련기관

3)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영업과 관련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4-4〉 보건복지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집행기관
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의 가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 자립자금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성년 등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됨(<표 4-5> 참고).

-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자금자원을 받으려면 복지대상자금대여 신청서 및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됨.

〈표 4-5〉 2010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원	858,747원	1,110,919원	1,363,091원	1,615,263원	1,867,435원
소득인정액	10,008,688원	1,717,494원	2,221,838원	2,726,182원	3,230,526원	3,734,870원

○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됨.

-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용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대상자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됨.

제2절 서울시 시책 검토 및 개선방향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경제진흥본부의 창업소상공인과에서 담당하나, 현 부서는 2010년 민선 5기 맞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서 자영업 관련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은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 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자영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1)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위탁한 시설로 서울시에 7개 센터(마포, 강남, 중부, 남부, 영등포, 동대문, 강북)와 1개 분소(창업지원부)가 운영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서울시 별도의 정책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 교육 등의 교육부문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등의 자금부문이 있음.
- 서울시 별도의 정책으로 시행되는 교육부문과 자금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별도의 교육부문
 - 창업아카데미는 지점별로 창업 및 경영에 관한 특강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 창업과정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부에서 창업에 관해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2010년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었음.

- 5단계 패키지교육은 업종별로 창업 패키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8번의 자체교육이 진행되었음.

–서울시 별도의 자금부문

- 서울희망드림뱅크는 서울소재의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표자인 기업,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을 완료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이 대표자인 기업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은 서울지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표 4-6〉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비고
	상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 창업, 경영, 자금, 교육, 기타로 구분되어 있음	서울시 별도사업
교육	창업아카데미	- 지점마다 창업 및 경영에 관한 특강을 제공 -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 - 강좌에 따른 지점별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시 별도사업
	여성 창업과정	-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부에서 창업에 관해서 멘토링 제공 - 2010년에 시행되어 총 4기까지 진행(2,5,8,11월)	
	5단계 패키지교육	- 업종별로 창업패키지 교육을 실시 - 자체교육은 총 8차까지 진행(4~10월)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음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서울시 별도사업
	서울희망드림뱅크	- 서울소재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천만원까지 자금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표자인 기업,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이 대표자인 기업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서울시 별도사업
	창업자가진단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중소기업청
	지역업컨설팅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중소기업청

되고 있음.

- 창업자금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사업장 임차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됨.

2) 일자리플러스센터

-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¹³⁾는 자영업 관련 사업으로 창업 교육과 훈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책에는 창업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립직업전문훈련 등이 있음.
 - 창업 교육은 신용보호, 재무설계 및 창업자금 안내 등의 강좌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회가 진행되었음.
 - 고령자 교육은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과 이력서 작성 등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회가 진행되었음.

〈표 4-7〉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비고
창업 교육	센터 직영	- 신용보호 및 재무설계 능력배양으로 구직 및 자영업 활성화 유도	서울시 별도사업
고령자 교육	센터 직영	- 인구의 노령화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시립직업 전문 훈련	정보 제공	- 서울시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정보를 제공	

- 시립직업전문훈련은 서울시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임.

- 직업전문학교에는 서울종합·한남·상계·엘림 등 4개소가 있으며,

13) 2009년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소한 취업전문기관으로 취업알선 및 창업상담을 하고 있음

조기퇴직자와 청년실업자를 위한 특성화 과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훈련생을 연 2회 모집하고 있음.

-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표 4-8〉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특성화 훈련과정

	서울종합직업	한남직업	상계직업	엘림직업
조기퇴직자	자산관리사(주) 플로리스트(주)	항공여행관리(주) 아동지도사(주)	산림관리(주) 직업상담사(아)	요양보호사(아) 실내조경사(아) 바리스타(오후) 카클리닉전문가(아) 발간건강관리사(아)
청년실업자	3DS MAX(주) 플로리스트(아) 디스플레이디자인(아) IT활용마스터(아)	샵메니지먼트(아) 컬러리스트(아) 전산세무회계(아)	직업상담사(주) 컬러리스트(아) 메이크업&네일아트(주) 프리젠테이션(주) 항공여행관리사(아)	바리스타(주/아) 피부미용, 네일아트(아) 전산세무회계(아)
준고령자	조경관리과(주) 건물보수(주) 조리(주)	요양보호사(주)	조경관리과(주) 도배과(주)	요양보호사(주)
여 성	-	요양보호사(주) 봉제(주)	-	-

※ 주는 주간과정, 아는 야간과정을 의미

3)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¹⁴⁾은 자영업 관련 정책으로 청년창업스쿨, 하이서울 창업스쿨, 맘프러너(Mom-Preneur)¹⁵⁾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 청년창업스쿨은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공간, 장비, 자금 등을 지원

14)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됨. 설립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49조 및 동법 시행령 53조와 민법 3장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에 의함

15)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주부 사업가 또는 엄마 사장님을 의미함

하는 정책으로 강남·강북의 청년창업지원센터¹⁶⁾에서 집행되고 있음.

—모집업종은 지식, 기술, 일반창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지식창업 : 게임개발법, IT기술 융합 디자인, 방송영상업, 프리랜서 작가, 프로그래밍, 통신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 지식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등
- 일반창업 : 무인복합 판매장, 퓨전음식 개발, 뮤지컬 공연기획, 전통음식 제조, 전통공예품 제조, 인터넷 쇼핑물, 유통업 등

○하이서울 창업스쿨은 오프라인 교육과 수료 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신기술창업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음.

—교육과정은 일반, 벤처, 디지털콘텐츠, 패션, 인터넷, 경영컨설팅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제공(3월, 8월)되고 있음.

- 일반창업과정 : 외식, 유통, 서비스 등 자영업 창업 업종
- 벤처창업과정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등 벤처창업 업종
- 패션창업과정 : 의류, 액세서리, 패션잡화 등 패션창업 업종
- 인터넷 창업과정 : 쇼핑몰, 마켓플레이스 등 인터넷 창업 업종
- 디지털콘텐츠 창업과정 : 게임, 교육, 내비게이션, 생활서비스 등 애플리케이션 창업 업종
- 경영컨설팅 창업과정 :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창업 등 경영컨설팅 업종

—수료 후 창업지원은 컨설팅부터 자금연계 지원,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 대상 : 하이서울 창업스쿨 정규과정 수료자 중 서울지역내 창업예정자 및 창업자
- 지원 기간 : 수료 후 2년까지
- 지원 내용 : 창업준비(컨설팅 제공) → 사업개시 준비(창업자금 연계지원) → 창업(경영 및 애로사항 등 지도)

16)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산하기관(2009월 7월 개관)

- 맘프러너 창업스쿨은 온라인 교육과 수료 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신기술창업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은 외식업, 유통업, 인터넷 등의 과정과 IT, 교양·취미, 경제·재테크 등의 실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료 후 창업지원은 컨설팅, 사업계획서 진단, 자금연계 지원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9〉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업명	사업 내용 및 기준	집행기관	
청년 창업	창업공간 무료제공	- 입주기업별 7~10㎡(입주기간은 1년)	강남, 강북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임차료·관리비 무상지원, 공용공간 지원	
	창업아이템 개발·활동비지원	- A등급(100만원/월), B등급(70만원/월)	
	홍보·마케팅 지원	- 제품홍보 및 체험공간 운영, 전시회 공동참가 등 판로개척	
	교육·컨설팅 지원	- 창업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정보자료실 운영, 동종 창업자 간 네트워크화 지원 등	
하이 서울 창업 스쿨	창업스쿨 교육	- 만 20세 이상의 서울지역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벤처 등 6가지 창업과정을 교육 - 연 2회 모집(3월, 8월)	서울신기술 창업센터
	수료 후 지원	- 하이 서울 창업스쿨 정규과정 수료자 중 서울 지역내 창업예정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컨설팅부터 자금연계 지원, 경영지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맘프 러너 창업 스쿨	e-러닝센터 교육	-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제공 - 창업과정, 실무과정으로 구성	서울신기술 창업센터
	수료 후 지원	- 맘프러너 창업스쿨을 수료하고 창업한 자 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계획서 진단, 창업자금 특별보증 등을 지원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관별 중복 운영

- 서울시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은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 소상공인 사업에 따라 집행기관이 다르다 보니 복잡하고 중복 운영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스마트숍 육성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지급함.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서울시 희망드림뱅크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급함.
 - 유사한 성격의 교육 및 컨설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신청기관이 다름.
- 서울시 시책은 주로 중소기업청의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며 항목에 따라 중복되고 있음(<표 4-10> 참고).
 - 자금부문은 사업명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기관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창업아카데미, 5단계 패키지교육 등 서울시 시책의 교육부문은 중소기업청의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비슷함.
- 서울시는 별도의 사업으로 여성창업과 청년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차이가 없음.
 -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단순화·통합화할 필요가 있음.

〈표 4-10〉 서울시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산업 통상진흥원	서울시립 직업학교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스마트숍 육성자금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			
	서울시 희망드림뱅크	○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	
교육	창업 아카데미	○			
	여성 창업과정	○			
	5단계 패키지교육	○			
	창업교육		○		
	고령자 교육		○		
	직업전문훈련				○
	창업스쿨 교육			○	
맘프러너 e-러닝센터			○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			
	맘프러너 e-러닝센터 수료 후 지원			○	
	창업스쿨 교육 수료 후 지원			○	
	청년창업 컨설팅			○	
시설 지원	청년창업 창업공간제공			○	

주 : ● 중소기업청의 정책, ○서울시 시책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관부서의 부재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기관마다 주관부서가 다르며,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없는 상황임.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일자리 지원팀(일자리 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주로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립직업학교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직업능력개발팀(일자리 정책과)에서 담당하고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⁷⁾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¹⁸⁾되면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의 공백이 우려됨.
- 따라서, 자영업 관련 업무와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1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 10조의 4제4항에 따라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권한을 소상공인지원원으로 이양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지원체계로 정비함

18)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에 소상공인지원원으로 이양됨

제5장 서울시 자영업 발전 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자영업 정책 제언

제 5 장

서울시 자영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서울시 자영업 현황

- 서울의 경제성장률(GDP 기준)과 자영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자영업은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08년 서울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한 반면, 서울의 자영업체 성장률은 -1.8%를 기록함.
 -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자영업의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2008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체는 서울 전체 사업체의 69.8%(502,498개소)를 점유하고 있어 서울시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세부 산업별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서울시 자영업체 종사자 비중은 64.2%, 서울 전체 사업체 비중은 57.6%에 달함.
- 서울시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는 지난 8년간(2000~2008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

-서울의 총 사업체는 8년간 연평균 증가율 0.0%로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자영업체는 연평균 0.6% 감소함.

-서울의 총 종사자는 8년간 연평균 1.7% 증가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는 연평균 0.9% 감소함.

○같은 기간(2000~2008년)에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부산업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임.

-대체적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자영업체 5.0%, 종사자 3.9%), 건설업(자영업체 4.7%, 종사자 1.9%) 순으로 증가함.

-반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업체 33.1%, 종사자 33.1%), 금융 및 보험업(사업체 6.9%, 종사자 5.6%),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체 3.0%, 종사자 3.7%) 순으로 감소함.

2.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 권역별 특성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자영업체의 수, 자치구별 자영업체 비중, 성장률을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서울시 자영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중구는 서울시에서 자영업체가 가장 많고 성장률은 강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과 강서권(마포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전체 사업체 중에서 자영업체 비중은 강남보다 강북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71.5%를 상회함.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자영업체의 성장률과 입지상 계수(LQ)를 이용하여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타입으로 구분됨.

-타입 I(성장지역)은 LQ 1.0 이상이고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

으로 강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과 강서권(강서구, 양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타입 II(성장가능지역)는 LQ 1.0 미만이고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마포구와 금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타입 III(쇠퇴지역)는 LQ 1.0 미만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과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에서 나타나고 있음.

-타입 IV(정체지역)는 LQ 1.0 이상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자영업체와 종사자 비중의 상위 8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도와 산업별 클러스트 형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3개 권역에서 산업별로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강서권(강서구, 양천구)은 성장지역(타입 I)으로 운수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은 쇠퇴지역(타입 III)으로 부동산업, 교육, 여가,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도심부(중구, 종로구)는 정체지역(타입 IV)으로 제조업과 도매업이 집적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3. 자영업 지원정책 검토

○중앙부처의 자영업 관련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로 집행되며, 몇 개의 사업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음.

-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크게 자금,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시설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되며,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서울시 별도의 정책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 교육 등의 교육부와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등의 자금부문이 있음.
 -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청년창업스쿨, 하이서울 창업스쿨, 맘프러너 창업스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자영업 지원체계는 정책별로 집행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중복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지원기관마다 주관부서가 다르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제2절 자영업 정책 제언

1.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과 집행기관의 일원화

-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집행 기관 및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소상공인지원회 산하로 이양되어 운영될 예정임.

〈표 5-1〉 지원정책별 집행기관

정책 부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SBA	소상공인 진흥원
	창업소상공인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지원과		
집행기관	-	서울직업 전문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	청년창업센터 서울신기술창업 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 정책별로 주관 부서와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운영될 수 있고 운영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짐.
 - 자영업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집행기관의 단 일화가 필요함.

2. 업종별 · 권역별 지원체계의 차별화

-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로 다른 산업특징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 · 권역별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함.

〈표 5-2〉 서울시 자영업체 권역별 산업 특성

구분	자영업 유형	권역	지역	집적·클러스터 산업
타입 I	성장지역 LQ > 1, 성장률 +	강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
		강서권	강서구, 양천구	운수업
타입 III	쇠퇴지역 LQ < 1, 성장률 -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영등포권	영등포구, 구로구	-
타입 IV	정체지역 LQ > 1, 성장률 -	중부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제조업, 도·소매업
		관악권	관악구, 동작구	-
		강동권	광진구, 강동구	-
		중랑권	중랑구, 성북구	-

- 성장지역(타입 I)은 강북권과 강서권으로, 현 사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확대 및 공영의 프랜차이즈 모델로의 변환을 유도함.
 - 운수업이 발달되어 있는 강서권은 전문지식 및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영업체의 역량을 강화함.
- 쇠퇴지역(타입 III)은 강남권과 영등포권으로,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 퇴출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함.
 - 서비스업이 집적되어 있는 강남권은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정체지역(타입 IV)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으로, 자영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이 특화되어 있는 도심부(중구, 종로구)는 기업형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및 컨설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함.

3. 자영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강화

- 서울시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직업훈련을 중복지원하고 있음.
 - 청년실업자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조경관리, 네일아트 등의 직업훈련이 중복되어 있음.
 - 또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은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학교별로 특성화된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기업 및 창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편이 필요함.
 - 학력, 직종, 연령 등 자영업자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기업과 훈련생 간 1:1 채용약정을 체결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이 확대되도록 유도함.

4. 세분화된 자영업 DB구축

-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자영업의 주요 경영상의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창업 인허가 절차를 활용하여 창·폐업률, 매출액 등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상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업허가(관할 구청) →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Paul Schoukens 외, 2009,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 2009,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 금재호 외,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노동
연구원
- 김봉근 외, 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보고율 분석 : 엔겔곡
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경제학연구』, 제56권 제3호, pp. 151~169
- 김준영·김성환, 2009,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요인분해 : 임금노동자와 비교”, 『지
역사회연구』 제17권 제4호, pp.153~171
- 서근하, 2007, “한국 영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에 관한 연구 : 중소
기업 소상공인 성장동력”, 『한국중소기업학회』 제29권 제4호, pp.265~289
- 성녹영, 2007, “영세자영업 지원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자영업컨설팅과 쿠폰제 경
영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상공인진흥원, 2009, 『소상공인 발전 및 성장가능 사업개발 연구 보고서』
_____, 2010,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 손민중, 2007, “최근 자영업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세리경제포커스』 제148호
- 오유진, 2009,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제22권 제2
호, pp.281~296
- 이승렬 외,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노동연
구원

- 이승렬·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pp.59~85
- 중소기업중앙회, 2009,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외, 2005, 『영세 자영업자 대책 자료집』

〈해외 문헌〉

- Blanchflower, D.G. and Andrew, J.O., 1998, “What makes na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pp.26-60
- Dennis, W., 1996,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 pp.645-661
- Torrini, R., 2006, *self-employment incidence, overall income inequality and wage
compression*, mimeo, Bank of Italy
- Wooldridge, Jeeffrey, 2004, “Unodserved Heterogeneity and Estimation of Average
Partial Effect”, Working Paper

〈인터넷 홈페이지〉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

<http://www.mw.go.kr/>(보건복지부)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http://www.nts.go.kr/>(국세청)

<http://www.seda.or.kr/>(소상공인진흥원)

<http://www.seoulsbdc.or.kr/>(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http://global-economy.seoul.go.kr/>(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http://www.sba.seoul.kr/>(서울산업통상진흥원)

<http://www.niba.or.kr/>(한국 자영업자 협회)

<http://www.oecd.org/>(국제협력개발기구)

과
과



부록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분류부호	해당업종	규모기준
C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B	광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E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P	교육서비스업	
S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록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2010. 1.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중소기업청)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p>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p> <p>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p> <p>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p> <p>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p> <p>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p>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p>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증개업(66202)은 제외</p>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증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익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틱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를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부록3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책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스마트숍 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공제자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자립 자금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읍면동 주민센터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희망드림뱅크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창업아이템 개발 활동비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혁신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e러닝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각종 훈련기관		
	창업 아카데미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 창업과정				소상공인지원센터
	5단계 패키지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고령자 교육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전문훈련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창업스쿨 교육				서울신기술창업 센터
	맘프러너 e-러닝센터				서울신기술창업 센터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항목	사업명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책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매점 조직화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맘포러너 e-러닝센터 수료 후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스쿨 교육 수료 후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년창업 컨설팅				청년창업지원센터
정보 제공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소상공인지원센터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및 지방중소기업청			
	청년창업 창업공간 제공				청년창업지원센터

영문 요약 (Abstract)



Th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s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Hee-Seok Park · Bum-Sik Kim · Mook-Han Kim · Seung-hui Yang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using the basic industry survey of 2000 and 2008 data. By reviewing the supported policies of each institute and our analysis, we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Self-employed business has a great role of regional economy in Seoul. For instance, this sector takes 69.8 percentage out of all Seoul's business sector in 2008.

One major type of self-employed business is the sector of wholesale, retail, transport, and restaurant business, etc. This sector is found as a main business sector of Seoul's self-employed business. However, self-employed business shows a trend to be continuously decreased since 2003 despite of business recovery. This implies the fact that gap against the actual economic sentiment is continuing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self-employed business structure.

The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by each area and industry in Seoul is as follows. As the result of analy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the growth rate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location quotient(LQ), it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I(growing area : more than LQ 1.0 and positive growth rate) is Gangbuk-gu and Gangseo-gu. Type II(area available to growth : less than LQ 1.0 and positive growth rate) is Mapo-gu and Geumcheon-Gu. Type III(declined area : less than LQ 1.0 and negative growth rate) is Gangnam-gu and Yeongdeungpo gu. Type IV(stagnant area : more than LQ 1.0 and negative growth rate) is the other regions that is shown in most areas in Seoul.

By the result of our analysis, we select the top eight business types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Spatial characteristics appear in three areas as follows: 1) Gangseo area(especially, Gangseo-gu, and Yangcheon-gu) is a growing area(Type 1) where is intensified by transport business and its industrial cluster is formed. 2) Gangnam area(G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is a declined area(Type III) where is intensified by service businesses such as real estate business, education, leisure, personal service, etc, and its industrial cluster is formed. 3) Downtown area(Jung-gu, and Chongro-gu) is a stagnant area(Type IV) where is intensified by manufacturing and its industrial cluster is formed.

Though the supported policy by institute for self-employed business is implement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y are being operated dublicately because an executive branch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each policy. To be more an effective policy for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we suggest four polices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hat is availabl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managing departments and executive branches separated by policy. 2)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a supported system for each business type and areas to vitalize regional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3)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characterized job training system that is available to reflect the demand of business and foundation by vocational schools in Seoul. 4)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organized system that is available to construct and manage classified data for the rate of foundation and cessation, sales volume by business type, area, and size using the licensing procedures of foundation.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2. Scope and Method of Study

Chapter 2 Position and Structure of Self-Employed Business in Korea

1. Define Self-Employed Business and Review Previous Studies
2. Environmental Change of Macro Economy and the Position of Self-Employed Business
3.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in Korea

Chapter 3 Analysis for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1. Situation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and the Trend of Change
2. Spatial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3. Industrial Characteristic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Chapter 4 Situation of Supporting Policy for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and Improving Directions

1. Review the Supporting Policy of Each Institute for Self-Employed Business
2. Policy Review for Seoul City and Improving Directions

Chapter 5 Sugges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Self-Employed Business in Seoul

1. Summary and Conclusion
2. Suggest Policies for Self-Employed Business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10-PR-40

서울시 자영업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발 행 인 서울시장개발연구원장

발 행 일 2010년 12월 22일

발 행 처 서울시장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769-4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